

장군님식당



주간 강선

2

주제 106 (2017)
루제 제330호 월간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

행진곡조로 힘있게 ($\text{♩} = 125$)

mf D^b G^b A^b D^b₇

1. 찬란한 태 - 양 기 축복 받으 - 며
 백두산 대 - 국 은 진격 해 간 - 다
 나 가자 조 선아 당 중 앙 부름따 라
 경 제 와 핵 무력 병 진 병 진 앞으 로

G^b B^b/F E^b A^b D^b

D^b G^b D^b E^b E^b₇ A^b

D^b G^b D^b E^b A^b D^b

2. 이 땅에 침략의 원쑤 있는 한
 우리가 갈길은 이 길뿐이다
 나가자 조선아 필승의 신심높이
 경제와 핵무력 병진 병진 앞으로

3. 경제를 건설해 만복 누리고
 핵무력 건설해 운명 지킨다
 나가자 조선아 세상에 소리치며
 경제와 핵무력 병진 병진 앞으로

작사 윤두근
작곡 전 권

차례

민족의 안정을 수호하고 그 광보를 마침내 주시여	3
일화	
우리의 생명	6
온 겨레가 보는 선군의 데	7
평양시의 일부	8
수기	
역사의 그날이 있었기에	10
선군령장을 우러러 터지는 경모의 웨집	10
수기	
그날은 2월 16일이였습니다	11
만민의 마음이 펼쳐놓는 꽃축전	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조선혁명군	14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호소	16
도서 《총애 동북해방전쟁을 도와》(2)	18
전화위복, 북변땅을 친감한 사회주의판세소리	20
- 신년사과업 판철을 위하여 -	
건재품생산자들의 애국의 열정	26
광물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금골	28
집단의 힘과 기술로	30
만리마속도창조의 앞장에서	32
득등상을 받은 학생	34
편지	
보고싶은 형님에게	35
조국의 품에 안겨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36



교향소식

청산땅이 전하는 이야기	38
경끼개 발구창설에서 특혜끼도의 실시에 대하여 (1)	40

인상기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보고	41
감격의 나날들을 잊을수 없다	41



력사인물

애국문화활동가 리준	47
----------------------	----

민족의 향기

정월대보름달에 담은 소원	48
-------------------------	----



야화

은혜와 보답의 꽃	54
---------------------	----

반공화국제재소동의 진상	56
------------------------	----

상식

비거	30
--------------	----

색갈과 건강	51
------------------	----

9가지나물	52
-----------------	----

조선족닭 (안타까움)	31
-----------------------	----

유모아

말그대로 하다	47
-------------------	----



전방지휘소에 오르신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

주체86(1997)년 4월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고 그 광보를 마련해 주시어

약동하는 짧음으로 세기를 주름잡아 비약하는
우리 조국에 뜻깊은 2월이 다가오고 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리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한평생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있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침략자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군사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 민족의 안전을 수호해주시고 나라의 통성번영을 위한

역척의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피어린 항일전쟁의 총포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성장하시고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에서 탁월한 군사전략과 무비의 담력, 배짱을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신 선군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을 온 세상에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잊고 피눈물속에 주체84(1995)년을 맞이하는 새해 첫아침에 다박솔초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생애의 마지

막시기까지 무력부문의 단위만 하여도 2 490여 곳이나 현지지도하시였다. 그 나날들중에는 주체85(1996)년 3월 20일과 같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하루 전선동부의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기 위하여 몸소 운전대를 잡고 1 000여리나 달리신 날도 있다.

선군혁명실록의 갈피에는 이런 이야기도 새겨져 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초도방어대와 해군부대를 시찰하시고 밤깊도록 집무를 보신 퍼로도 푸실 사이없이 일요일 이른새벽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찾으시였다.

판문점은 다른 전연지대와는 달리 한뼘정도의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적아가 직접 맞붙어 총부리를 겨누고있는 최전연, 최전방의 가장 위험한 곳이다. 그때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광란적인 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판문점일대에는 다치면 터질듯 한 초진장상태가 감돌고 있던 때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판문점에만은 나가시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말씀드리였지만 그이께서는 우리의 충실한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에라도 가야 하고 또 가고있다고 교시하시며 최전연의 전사들을 기어이 찾아가시였다.

한세기전만 해도 외세의 리권쟁탈의 무대가 되고 종당에는 일제에게 나라마저 송두리채 빼앗겨야 했던 조선, 힘없는 민족이 당하는 가슴아픈 참상과 피눈물의 파거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려 그이께서는 그렇듯 전선길을 끝없이 걸으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와 사상과 뜻,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선군혁명동지의 대오로 철통같이 뭉쳐졌으

며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추고 우리식의 위력한 군사장비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냄으로써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은 더욱 백배해졌다. 원군, 원민의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가 확고히 실현되였으며 전국이 철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그이께서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우리 함께 발걸음 맞추어 달리고 또 달리자고 하시며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가장 준엄하였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군대와 인민이 자주적근위병, 영웅적인민으로 위용떨칠 수 있었을뿐만아니라 자위의 핵뢰성으로 조국의 국력과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옮려세운 성과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떠나 도저히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우리 공화국처럼 핵보유가 민족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운명적인 문제로 나선 나라는 없었다.

지난 조선전쟁(1950. 6. 25-1953. 7. 27.)시기 미제의 원자탄공갈은 조선반도의 수백만에 달하는 가족들이 북파 남으로 갈라져 살게 하는 비극을 산생시켰고 그 고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수십년간 해와 해를 거듭하며 전략자산이란 전략자산은 깡그리 동원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이 광란적으로 별리는 북침핵전쟁소동속에서 우리 인민은 항시적인 핵위협을 받으며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제의 핵위협이 극한점에 이르러 조국앞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던 20세기 90년대, 이전 쏘련이 해체되자 미국은 사회주의조선을 없애는것은 시간문제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핵위협공갈을 시작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앞에 드리운 먹장구름을 깨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2(1993)년 3월

8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련이어 핵무기 전과 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것을 선언하는 공화국정부 성명이 발표되였다.

공화국의 단호한 립장앞에 미국은 대화마당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탈퇴, 그 이후에 진행된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회담과 그 리행을 위한 주요협상들, 효력을 립시정지시켰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완전탈퇴 등은 위대한 장군님의 결단과 의지, 령활무쌍한 전략과 지략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선의 승리였다.

서방의 한 인사는 미국이 핵무기로 위협하면 할수록 조선인민의 타격력도 더 강해진다는것, 이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마련하신 조선의 정치력학이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세기에 들어와 미제의 핵위협이 더한층 강화되어 공화국이 공개적으로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오르고 해마다 미제와 괴뢰들의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에도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원쑤들이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초강경의 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맞받아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제가 핵으로 우리에게 항시적인 위협을 가하는 조건에서 핵으로 맞서싸워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할수 있다는 의지와 배짱을 지니시고 핵시험의 성공으로 온 행성을 진감시켰으며 원쑤들을 전률케 하시였다.

주체95(2006)년 10월 9일은 민족의 운명, 조국의 지위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 역사의 날이였다.

그날 제1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던 것이다.

이어 주체98(2009)년 5월에는 제2차 지하핵시험에서 또다시 성공하였다.

공화국의 핵보유는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의미하는것이였다.

조국을 존엄높은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더욱 빛나고있다.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과적단행, 첫 수소탄시험에서 성공,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완전성공과 실전화된 위력한 핵탄두폭발시험 성공...

강력한 자위적핵무력을 마련해주시여 조국땅 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미제와의 포성없는 전쟁에서 련전쾌승을 안아올수 있게 한 이 모든 성과들은 조선민족이 다시는 제국주의의 비참한 노예가 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존엄과 궁지를 안고 평화와 행복속에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만고생을 다하시며 겨레에게 안겨주신 민족의 귀중한 만년재보이다.

선군으로 민족의 안전을 수호해주시고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그 담보를 확고히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이 있어 조국인민들은 이렇게 전쟁이 없는 푸른 하늘아래에서 마음놓고 살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우리 조국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존엄있는 나라로 되게 하실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 지니시고 조국땅위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우리 조국의 미래는 더더욱 휘황찬란하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는 곧 조선민족의 승리이고 강성번영이며 온 겨레가 바라는 조국통일도 그이의 령도에 의해서 온다는것이 가리울수 없는 진리로 되고있다.



우리의 생명

주체92(2003)년 2월 3일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의 기자, 작가들이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설명절을 맞으며 동무들이 생각나서 불렀다고 하시면서 그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기자, 작가들이 두서없이 올리는 이야기들을 시종 미소를 머금으시고 다 듣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듣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선군정치는 우리 당이 처음 내놓은 새로운 정치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선군정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선군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회주의를 고수할수 없고 인민의 행복을 지켜낼수 없었으며 동무들이 발편장을 잘수도 없었을것입니다.』

그들은 숙연한 마음을 안고 그이의 교시에 귀를 강구었다.

선군정치를 하고 선군의 상징인 오성산이 있어 나라를 지켜냈다, 오성산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지금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다, 뜻밖에 수령님을 잊고 가슴이 터져오던 일들을 겪던 그때를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하시며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계속되었다.

우리의 선군정치는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정치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나의 정치에서 핵을 이루고있다, 나는 우리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에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선군정치를 하였으며 적들의 초소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최전연초소들을 끊임없이 시찰하였다. …

오성산, 대덕산, 철령과 351고지, 초도와 판문점…

위대한 장군님께서 엄혹한 시련의 시기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넘고 헤치시던 험산준령들과 풍랑사나운 바다길이 기자, 작가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자신께서 군인들과 인민들을 그리워하고 군인들과 인민들은 자신을 그리워하는것이 바로 우

리의 일심단결이고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라고, 원쑤들이 발악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굳건해지는것이 우리의 혼연일체이고 일심단결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시하시였다.

이제는 우리 나라가 무시할수 없는 나라로 되였다, 우리 나라는 선군정치의 조국이기 때문에 지금 큰 나라이건 작은 나라이건 우리와 관계를 좋게 가지려 하고있다, 큰 나라들이 우리 나라를 업수이여기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갔다. …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선군정치를 하고있지만 그 폭과 깊이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모를것이며 그렇기때문에 원쑤들은 더 무서워하고있다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어찌구저찌구 하여도 우리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감히 건드릴수 없다고, 우리는 끄떡없다고,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이것은 진리이고 법칙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흥분을 늑잖히기 어려우신듯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방안을 거니시였다.

기자, 작가들도 일시에 일어나 그이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우리는 대포를 내댈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나는 이런 신념, 이런 배짱, 이런 의지로 미제와 싸울것입니다. 싸울바에는 반드시 이기는것이 혁명가의 기질입니다. …

우리가 선군정치를 계속해나가는 한 우리 인민은 자주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될것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입니다.』

기자, 작가들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격정의 불덩어리를 삼키며 심장으로 웨쳤다.

(장군님, 조선은 별써 이겼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승리인 위대한 선군정치는 만세, 만만세입니다!)

* * *

온 겨레가 보는 선군의 덕

- 사호[과학원] 사회정치학연구소 소장 서성일과 본사기자인 대담 -

기자: 지금 미국은 유엔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군사적힘을 마구 휘두르며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과 민족들의 존엄과 자주권을 짓밟고있다.

소장: 그렇다. 힘이 없으면 정의도 부정의로 되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자기를 지킬 힘이 약한탓에 여러 나라들에서는 침략자들에 의해 온 강토가 류혈참극의 란무장으로 화하고 피난민행렬이 지금도 끊길줄 모르고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에서는 지난 수십년동안 전쟁의 포성이 한번도 울리지 않았으며 우리 겨레는 전쟁을 모르는 속에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려오고있다.

기자: 사실 세계적으로 볼 때 조선반도만큼 항시적으로 정세가 긴장하고 쌍방이 군사적으로 침예하게 대결하고있는 지역은 없다. 이런 위험한 곳에서 고조되군 하던 전쟁위기가 해소되고 평화가 유지되어온것은 공화국의 선군정치가 아니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다.

소장: 돌아보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과 침략전쟁소동으로 조선반도가 전쟁위기속에 빠져든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하지만 미국은 그때마다 전쟁을 부르짖으며 으르렁거렸을뿐 감히 불질은 하지 못하였다.

그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선군으로 다져진 공화국의 군사적힘이 막강하기때문이였다. 공화국은 날로 우심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조국과 민족을 보위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기 위해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었다. 선군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군

사적보험도 일격에 짓부실수 있는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다져놓았다.

그리고 나라의 국력과 존엄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웠다. 오늘날 공화국은 강국의 징표로 되는 핵을 보유하였고 국력의 종합체로 보는 인공지구위성을 개발발사하고있으며 경제강국과 문명강국을 건설하고있다.

이 기적, 이 현실은 역사가 준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선군의 덕이다.

기자: 옳은 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는 조선반도에서 미국에 의해 전쟁이 다시 터지는것을 막고 민족을 핵전쟁위험에서 구원하는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의 비극적실태와 공화국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온 겨레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소장: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도,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존엄높은 우리 조국의 위용도 있는것이다.

하기에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 [주체101(2012)년 2월 14일]해드린 날을 맞으며 탁월한 선군령도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 우주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그이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아보려고있다.

기자: 실지 오늘 선군의 덕은 우리 겨레 누구나가 입고있다. 선군은 남조선인민들을 포함한 겨레의 안전을 지켜주고 북남관

계의 자주적발전을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소장: 우리 인민만이 아니라 남조선인민들도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현실로 체험하고있다. 미국의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정세가 나날이 침예화되어갔지만 남조선에서 정치인들과 재벌들, 중소기업인들의 정치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것이 지장없이 진행되어왔다.

만일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들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정치활동이나



신앙생활, 학업은 고사하고 살아남아있을 담보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선군정치를 두고 《북의 선군정치가 있어 이남땅에도 평화가 숨쉬고 있다.》, 《북의 군력은 민족의 힘이고 재부이다.》, 《북이 강국이 되니 민족이 강해져 좋고 미국이 건드리지 못하니 전쟁을 막아주어 좋다.》라고 찬양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정녕 선군의 보호가 있어 민족이 전쟁의 재난을 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며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 * *



평양시의 일부

사진 본사기자 흥훈

력사의 그날이 있었기에

력사의 시련을 박차고 태여났고 혁명의 폭풍속에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대오로 다져진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찬 행로에는 정규무력건설의 빛나는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다.

뜻깊은 이날을 맞이하는 나에게는 일찌기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을 밀친으로 하여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으며 혈전의 고비를 넘고 해쳐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혁사적위업을 이루하시였을뿐아니라 해방된 조국에서 지체없이 정규무력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그날은 주체37(1948)년 2월 8일이였다.

이날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수십만관중의 환호속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되였음을 알리는 장엄한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그때 오늘의 함경남도 단천시 중산리에서 부모님들의 농사일을 도와주며 학교에 다니던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나만이 아니라 마을의 동무들도 환희에 넘쳐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는데 그 모습을 보는 나에게는 나라를 지킬 온전한 군대가 없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가혹한 소년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지난날이 떠올랐다. 그러하던 우리 가 이제는 자기의 정규무력을 가지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정말이지 자랑스러웠다.

그리하여 나는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인민군대를 내 눈으로 보고싶고 또 인민군대에 입대하려는 열망을 안고 동무들과 함께 평양으로 향하였다.

평양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새 군복을 입은 인민군군인들의 품품한 모습을 보았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땅크들의 모습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인민군대형님들을 통하여 나는 인민군대가 어떤 군대인가 하는데 대해서도 알수 있었다. 사실 그때 그런 이야기들까지 듣고보니 당장 군대에 입대하고싶은 열망을 풀고싶었다. 그래서 동무들과 같이 폐를 써보았는데 나이가 어려 종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토록 바라던 인민군대에 내가 입대한것은 주



선군령장을 우러러 터치는 경모의 웨침

『…세계는 북의 선군정치를 두고 <한 민족만이 아닌 행성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만복의 정치>로 찬양하고 있다.

나는 심장으로 웨치고싶다. 그대가 누구이든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긴다면 정의의 상징이시고 평화의 수호자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따르라.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궁지이며 영광인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남조선의 인터네트홈페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라는 독특한 정치로 이북군을 일당백의 무적강군으로 육성하시였다. 이북이 선군정치로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다지지 않았다면 삼천리강토는 벌써 전쟁의 불길속에 휘말려들었을것이다. 북의 선군정치야말로 전

쟁을 막는 평화의 보검이고 민족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주는 무적의 무기이며 조국통일의 승리를 담보해주는 백승의 기치이다.』(미래연구학회 성원)

『미군이 술한 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때없이 벌려놓는 군사연습으로 해서 이 땅에 전쟁의 불찌가 언제 틱길지 모를 불안정한 정세속에서도 사람들은 공포를 모르고 살아가고있다. 그것은 이북에 그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수호할수 있는 막강한 전쟁억제력이 있기때문이다.

이북의 선군정치는 미국의 독단과 전횡, 강권파핵전쟁도발기도를 좌절시키는 정의와 평화수호의 보검이다.』(남조선자주학회 성원)

『선군정치는 민족의 생명이고 존엄이다. 내가

제39(1950)년 6월 미제가 정규무력으로 된지 얼마 안되는 우리 인민군대를 양잡아보고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때로부터 몇달후였다. 그때 미제가 우리 조국땅에 막대한 병력을 들이밀었으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전략전술적우세로 여지없이 타승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경도전법, 비행기사냥군조활동 등을 비롯한 수많은 주체전법들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군사작전수행에 널리 활용하도록 하시여 조선인민군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하시였다. 나도 비행기사냥군조활동을 힘있게 벌려 《공중우세》를 자랑하며 제멋대로 날뛰던 미제의 비행기들을 한달남짓 한 기간에 11대나 떨구는 위훈을 세워 공화국2중영웅칭호를 수여받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해방후 그처럼 어려운 시기였지만 지체없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군업적이 가져다준 위대한 승리였다.

무적의 강군인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행로우에 빛나는 2월 8일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더욱더 찬란히 빛을 뿐릴것이라는것을 나는 굳게 확신한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공화국2중영웅 김기우

살고 내 민족이 살려면 선군정치를 절대지지하고 성원해야 한다.

이것은 선군정치의 덕을 입는 우리 이남민중이 당연히 지켜야 할 민족적도리이고 의무이다.

량심에 살고 의리에 살려는 사람이라면 정치인이건 재력가이건 신자이건 누구라 없이 당연히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에 감사의 큰절을 드려야 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선군정치를 돋고 받들어야 할줄 안다.』(남조선의 정치학 교수)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혁사에 류례없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제국주의련합세력을 격파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수호하시였다. 제국주의강적들도 감히 범접을 못하는 나라, 외부의 그 어떤 압력과 제재가 통할수 없는 나라, 자주와 존엄에 사는 강대한 나라가 바로 이북이다.』(인천의 시민사회단체대표)

* * *

그날은 2월 16일이였습니다

우리 김일성경기장으로는 하루에도 수많은 체육인들과 청소년학생들, 근로자들이 찾아와 체육활동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나는 회열에 넘친 그들의 모습을 볼 때면 인민들에게 현대적인 경기장을 마련해주시려 탄생일에도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뜨겁게 돌아커지게 됩니다.

주체71(1982)년 2월 16일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탄생 40돐을 맞으시는 뜻깊은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도 마다하시고 건설장을 찾으시였습니다.

이 날 웅장하게 일떠서고 있는 경기장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설자들이 당의 의도를 받들고 경기장건설에 달라붙었기때문에 겨울철에도 공사를 매우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었다고 하시였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 건설장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석에서 풀어주시던 그이께서는 배경대채양과 관람석채양이 련결되는 부분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빼지 못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모란봉경기장(당시)개건확장공사가 다 잘되었지만 배경대와 관람석, 주석단의 채양높이가 서로 같지 않아 보기 싫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습니다.

『모란봉경기장채양이 세개층으로 되다보니 마치 모자를 하나는 놀라쓰고 다른 하나는 바로 쓰고 또 다른 하나는 올려쓴 격이 되였습니다.』

그이께서 웃으시며 하시는 교시였으나 일군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책을 범했는가를 깨닫게 되였습니다.

일군들은 경기장채양을 만들 때 집단체조의 효과를 높일수 있게 배경대를 무대화하는데만 관심을 돌리면서 미관상고려를 하지 못하였던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헤아려보신 그이께서는 신중한 어조로 교시하시였습니다.

《채양을 똑같은 높이로 하였더라면 더 웅장해보일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기장을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든 경기장으로서 손색이 없게 꾸리자면 이제라도 채양을 고칠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탄생일을 맞으시는 날마저 휴식을 잊으시고 전설장을 찾으시여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에 자그마한 손색이라도 있을세라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공이 끝난 채양을 같은 높이로 맞춘다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그 육중한 강철채양보들을 다시 해체하였다가 조립해야 하는데 그자면 품도 품이지만 완공날자를 도저히 보장할수 없었습니다.

일군들의 심중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결심하기까지가 중요하지 결심만 하면 방도는 나서기 마련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로동계급은 이 일도 반드시 해낼것이라는 믿음을 주시였습니다.

크나큰 믿음이 어려있는 그이의 교시에 일군들은 마음의 격동을 누를길 없었습니다.

이날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혁신적인 모란봉경기장을 수령님의 존함으로 부를것을 바라마지 않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봉원을 헤아리시여 앞으로 경기장개건학장공사가 끝나면 응당 《김일성경기장》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부르게 될 경기장이기때문에 하나의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거듭 간곡히 교시하시였습니다.

자신의 탄생일마저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며 경기장을 홀륭히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신 그이의 혁명한 령도에 의하여 김일성경기장은 그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앞두고 개건학장되었습니다.

오늘 김일성경기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문명 강국의 체모에 맞게 더욱 홀륭히 변모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경기장을 더 잘 애호관리하여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체육인들을 비롯한 인민들이 경기장리용에서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해나가겠습니다.

김일성경기장 지배인 림남식

만민의 마음이 펼쳐놓는 꽃축전

조국에서는 해마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김정일화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것처럼 김정일화는 일본의 저명한 원예가인 가모 모도데루가 주체 77(1988)년 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이께 삼가 올린 꽃이다. 가모 모도데루는 20여년간의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끝에 얻어낸 새 품종의 이 꽃에 그이의 존함을 모시였다.

이렇게 세상에 나온 꽃은 그후 만사람의 마음에 떠받들려 조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 널리 보급되어 만발하고 있다.

김정일화축전은 주체 86(1997)년 2월에 처음으로 열린 후 평양의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년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조국의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들로부터 가정과 각급 학교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단체들과 개별적성원들 그리고 해

김정일화를 성의껏 마련하여 전시한 재중동포들



조국에서는 해마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김정일화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해마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김정일화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외동포들과 조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대표부들, 국제기구대표들, 외국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과 인사들, 화교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가 평시에 자기들이 정성을 다해 활짝 피운 김정일화들로 뜻이 깊고 특색있는 전시대들을 형상하여 축전장을 이채롭게 펼쳐놓고 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제20차 김정일화축전만 보아도 수많은 참가자들이 자기들의 마음이 어린 붉고붉은 불멸의 꽃으로 전시장을 꽉 채웠다.

어느 한 조선인민군부대 군인들은 김정일화로 형상한 대형꽃바구니를 중심으로 수많은 김정일화로 최고사령관기와 조선로동당기를 형상하였는데 꽃바구니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정중히 새겨져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김수정, 장현주학생들은 백두산을 찾아가 천지호반의 부석이며 천연

수립속의 이끼, 조약돌들을 가져다 붉게 피운 불멸의 꽃화분을 정성껏 장식하여 전시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를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동포들은 이역땅에서도 김정일화를 가지중지 키워 축전에 내놓았으며 진귀한 화초들을 구하여 전시대를 특색있게 장식하였다. 그리고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과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들이 보내온 불멸의 꽃들과 브라질련방공화국대사관, 꾸바공화국대사관, 유엔아동기금대표부 등에서 보내온 김정일화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참으로 2월의 꽃축전은 한평생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주시고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거래와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신뢰와 흠토심이 펼쳐놓은 대정치축전이였다.

조선 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일군 리병파는 이렇게 말하

였다.

《현재 축전의 규모는 대단히 커져 축전참가수며 참관자수는 해아릴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전시되는 꽃의 수 역시 지난해만 놓고 보아도 제1차 김정일화전시회에 비하여 수십 배나 늘어났다. 축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계속 높아가고 있다.》

축전장을 찾은 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김정일화축전은 우리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지향과 염원속에 해가 바뀔수록 더 특색있고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축전장에 펼쳐진 태양의 꽃바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토심의 분출이다.》(불멸의 꽃 보급후 원회 중국지역대표단 단장 최룡호)

《활짝 피여난 불멸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경모심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잘 알수 있었다. 김정일화축전처럼 성대한 위인청송의 꽃축전은 세계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절세의 위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화는 태양의 꽃으로 영원토록 만발할것이다.》(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파의 친선협회위원장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조선혁명군

(전호에서 계속)

1928년인가 1929년에 최효일은 나를 만나려고 일부러 길림에 찾아왔다. 만나고보니 얼굴이 규방처녀들처럼 해말쑥하고 꼽살하게 생긴 사람이였다. 그런데 생김새와는 달리 술을 많이 마시였다. 혁명가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이 좀 흄이였다. 우리는 그때 려관에서 밥도 같이 먹고 담화도 여러 시간 하였다. 그가 간드러진 일본

『옥상』의 말을 흥내내면서 천황을 비롯한 일본의 고위급 군정 인물들과 우리 나라의 매국 5대 신을 걸죽하게 육질하는 바람에 나는 담화도중 여러번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수 없었다.

최효일은 남들이 보기 드문 미인이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안해와 함께 살면서도 가정생활의 재미 같은것에 대해서는 꿈만 하게 여기는 태평스러운 성미를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새색시같은 얼굴생김새와는 달리 혁명투쟁에서는 놀라울만치 담이 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였다.

그가 일본인상점의 무기를 여라문정 빼내 가지고 안해와 함께 교유수로 탈출해온것은 카륜회의 직전이였다. 우리가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하기에 앞서 그 파도적 단계로 소규모의 군사정치조직을 나오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을 때여

서 최효일의 탈출은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우리는 동무들의 보고를 통하여 혁명군을 결성할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교유수에 가보니 실지로 대원명단과 무기가 다 마련되어있었고 결성모임장소와 모임참가대상자까지도 확정되어 있었다.

어떤 혁사가들 가운데는 국민부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과 우리가 교유수에서 조직한 동명의 조선혁명군을 같은 군사조직이 아닌가 하고 혼돈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부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 성원들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혁명군에도 망라된것만큼 그렇게 추리하는것도 무리는 아니다.

두 군사조직은 명칭이 같으면서도 서로 지도리념도 다르고 사명도 달랐다.

국민부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이라는것은 국민부자체의 내적모순이 그대로 반영되어 실제 활동과정에 대립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그 명칭과 간부진영도 사흘이 멀다하게 뒤바뀌우군 하였기때문에 사실상 실체를 가려보기 힘든 혼편이였다.

우리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은 공산주의리념에 의해서 지도되며 군중정치사업도 하고 군사활동도 하는 정치 및 반군사조직이였다.

조선혁명군을 결성할 때 우리는 명칭을 어떻게 달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

를 제기하였다.

조직을 내울 파업을 주기로 하고 그 소조의 조장으로 리제우를 임명했다.

우리는 1928년에 이미 무송주변과 내도산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들에게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장백지구로 활동근거지를 옮기라는 파업을 주었다.

나는 그때 국민부가 내온 조선혁명군의 명칭을 그대로 리용하여 우리 군의 이름을 조선혁명군으로 해야 한다고 그들을 설득하였다. 『는.ㄷ』를 결성할 때에도 민족주의자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공산주의 냄새가 나는 말은 불이지 않고 타도제국주의 동맹이라고 달았는데 우리가 조직하는 군대도 조선혁명군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으면 민족주의자들의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활동상 편리 할것이라고 하였다.

조선혁명군이라는 외피를 썼기때문에 그후 우리 군은 실지로 활동에서 많은 덕을 보았다.

조선혁명군은 조직된 후 여러 소조로 편성되어 각지에 파견되었다. 국내에도 몇개의 소조가 파견되었다.

그때 우리가 혁명군소조들을 조선에 파견한 목적은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꾸리고 국내혁명투쟁을 양양시키는데도 있었지만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가늠해보자는는데도 있었다.

우리는 조선혁명군결성식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리제우, 공영, 박진영을 중심으로 하나의 국내공작소조를 뭉고 그들에게 신갈파로 해서 랑림산맥을 타고 평안북도일대로 뻗어나가면서 광범한 대중속에 혁명

혁명군 대원들중에 현대홍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평가에서 군중공작을 하던 도중 체포되어 장춘으로 끌려갔는데 체포되는 순간 놈들의 눈을 피해 몸에 품고 다니던 무기를 동지들에게 넘겨주었다.

경찰은 무기를 감춘 곳이 어디냐고 하면서 그에게 야수적인 고문을 들이대였다.

현대홍은 어떤 칠도역의 이름을 대면서 그 역근처에 있는 백양나무밑에 파묻었다고 『고백』하였다. 탈출할 기회를 얻으려는것이였다. 그 말에 귀맛이 바싹 당긴 경찰들은 현대홍을 기차에 태워 가지고 그가 원총을 파묻었다는 곳으로 향하였다.

차가 한창 달리고있을 때 현대홍은 손목에 채워진 수갑으로 호송경찰 두놈을 까눕히고 달리는 기차에서 뛰여내린 다음 혁명조직을 찾아 팔굽과 무릎으로 기여서 카륜에 돌아왔다. 카륜의 동무들은 현대홍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줄칼로 쓸어서 겨우 벗기였다.

그는 이처럼 무서운 시련을 겪고나서도 몸이 회복되자 다시금 공주령에 나가 활동하다가 이번에는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공주령은 일제가 중국에서 빼앗아낸 조차지여서 일본사람들의 관할하에 있었다. 현대홍은 법정투쟁도 잘하였다. 그는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서울서대문형무소에서 고생하다가 일제의 야수적 고문에서 생긴 후탈로 세상을 떠났다.

(다음호에 계속)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1월 1일 주체 106(2017)년 새해를 맞으며 신년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대정치축전으로 뜻깊고 성대하게 빛내인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올해에 조선로동당과 인민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기적의 2016년 한 해를 통하여 비상히 양양된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꽂피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체 인민이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우선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과학기술부문이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

들을 푸는데 주력하며 전력파금속, 화학공업부문이 기치를 들고나가고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들의 석탄과 수송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는 것이다. 또한 건설부문에서 려명거리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고 단천발전소건설과 김종래전기기판차련합기업소현대화공사, 원산

지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하며 교육문화시설과 살림집들을 더 많이 훌륭히 일떠세우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중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며 국토관리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나서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키는 등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올해 목표를 기어이 완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상을 일으켜 문명강국건설을 앞당기고 사회주의정치군사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지는 것이다.

온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민족의 통일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호소와 성의있는 제의를 외면하고 반공화국제재압박과 북침전쟁 소동에 매여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치악의 국면에 몰아넣었습니다.

지난해에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통치기반을 밀뿌리채 뒤흔들어놓았습니다. 남조선인민투쟁사에 뿌렷한 자욱을 새긴 지난해의 전민항쟁은 파쑈독재와 반인민적정책,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보수당국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입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호소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증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있으며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없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무력대고 우리의 자위적행사들에 대해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합니다.

또한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는 놀음을 걱정치워야 합니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련대련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

고 래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것입니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남조선을 타고앉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끝장내며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리간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 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여야 하며 주변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

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깊은 해로 되도록 그 무엇인가를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년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해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정치군사적 압력과 제재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을 꺾지 못하였으며 주체조선의 도도한 혁명적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

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걸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도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에 충실할것이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것이라는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 * *

도서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 (2)

『국가적후방』의 역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북해방전쟁 전기간 숭고한 의리로 중국인민에게 사심없는 원조를 주시였다.

1946년초 국민당군대가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밀에 많은 병력과 현대적인 장비에 의거하여 중국의 동북땅을 일거에 집어삼키려고 금주, 심양, 장춘, 매하구, 길림, 교하 등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동남만파 남북만파의 련계를 차단하자 공산당군대는 하는수없이 후방에 있는 단동, 통화지구를 내놓게 되였다. 남만의 부상병들과 가족들, 후방인원들은 철수할데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북부지대를 중국 동북의 남만과 북만 그리고 판내와 련결하는 외랑으로 리용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내적으로는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라고 하고 외적으로는 『평양리민공사』라는 명칭으로 된 중국의 동북해방작전에서 제기되는 물자수송과 인원수송, 물자교류를 진행하는 상설기관이 나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공산당이 급한 고비를 넘기도록 일시적인 몇번의 지원사업이나 조직하신것이 아니라 이 판사처를 통하여 동북해방전쟁의 전기간 끊임없는 지원을 주시였다. 1946년 7월부터 1949년 2월까지 2년반 남짓하게 자기 사업을 진행한 판사처를 통하여 조중쌍방은 20여 가지의 협정들을 체결하였으며 물자대금처리는 무역협정에 따라 1년에 한번씩 하였다. 판사처는 이외에도 중국혁명가들의 전권대표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주체35(1946)년 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택동동지의 부탁을 안고 평양에 찾아온 진운(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의 요구대로 일제침략군에게서 로획한 무기와 탄약을 중국에 보내줄것을 결심하시였다.

그때를 돌이켜보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기 한자루가 우리에게

도 매우 귀중한 때였지만 10만여정의 무기와 탄약, 폭약, 군복천과 군복, 의약품들을 동북민주련군에 넘겨주도록 하였다고 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는 국제주의에 매우 충실하시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 10만여정을 보낼 때 포도 함께 보내주도록 하시고 주체35(1946)년 8월과 주체36(1947)년 6월에도 많은 양의 포와 무기를 또다시 보내주도록 하시였으며 포병련대와 공병부대를 조직하여 중국 동북전선에 파견하는 조치 까지 취해주시고 총과 포만이 아니라 폭약도 많이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판내와 동북, 남만과 북만사이의 통로가 국민당군대에 의하여 다 막혀버리였을 때에는 반변부대(184사)가 우리 나라 령토를 거쳐 동북만주로 돌아갈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상해에 있던 중국공산당 간부들과 군사인원들이 우리 나라의 남포를 거쳐 할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소화의 료동군구 지휘관들과 전투원들, 그 가족들이 철수할 때에는 우리 나라를 거쳐 다시 중국 동북지방으로 들어갈수 있게 해주시는 등 모택동동지가 진운을 통하여 부탁하였던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시였다. 국민당군대가 료녕의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여 공산당군대가 장백과 무송의 중간지대에 압착되게 되었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중국공산당이 요구하는대로 우리 나라문을 다 열어주시고 공산당군대가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시였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동북해방전쟁에서 중국의 후방기지로 리용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동이 함락되었을 때에는 남만 무장장비의 85%와 2만여t의 전략물자가 압록강을 넘어 우리 나라 산간오지에 은폐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전투인원들과 부상자들을 우리 나라의 집집들에 분숙시켜 휴식도 하고 치료도 받도록 하시였다. 일제가 폐망하면서 버리고 간 2 000여화차분의 물자들도 그이께서는 무상으로, 일부는 물자교환의 방법으로 중국공산당에 넘겨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기계와 물자들도 우리 나라의 남양철다리를 통과하여 훈춘까지 무사히 수송되도록 하시였으며 1946년 초

국민당반동들이 해방지역들에 대한 공격과 함께 훈춘군수생산기지를 공격할 때에도 당시 우리 나라 아오지석유공장자리에 이동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 동북지방에 우수한 간부들을 파견하시고 무선통신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중국의 실정을 제때에 료해하시고 군복과 신발 등 군수물자들과 우리 나라 평안북도에서 생산한 쌀 그리고 다량의 의약품과 생활필수품, 소금까지 해결해주시였으며 새 조국건설을 위해 사방에서 요구하는것이 전기였지만 우리 수풍발전소의 전기도 중국에 보내주시였다.

승리의 전주곡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각이한 토비무리만도 무려 9만명이나 되였다.

토비들은 일제가 폐망한 후에는 일시 혼란된 틈을 리용하여 도처에서 파괴암해책동을 벌리면서 저들의 세상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에게 일제주구들을 비롯한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인민들의 안전과 혁명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사업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연길에 도착한 강건은 1946년 4월에 룽정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주구청산대회를 조직하였다.

이런 때 길동분구사령부로 찾아온 한 녀인은 자기가 항일유격대의 대원이였던 김학군의 안해 김신숙이라고 하면서 1930년대초 일제의 해란강대 학살때 피살된 남편이 희생되기 전에 김일성장군님께 꼭 전달해달라고 당부한 사업보고와 학살사건에 관여한 일제의 주구명단을 적은 종이쪽지를 내놓았다.

이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그 죄상을 밝혀낼 때가 왔다고 하시며 원쑤들의 살륙만행을 폭로단죄하고 주구들을 청산하는 청산대회를 열어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원쑤들에 대한 증오를 힘으로 바꾸어 근거지보위와 적들을 타승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 녀인이 내놓은 『하동자위단이 혁명동지들을 참살한 기록』에는 해란강대 학살사건(1932년 음력 8월 7일 일본수비대와 자위단 70여명이

연길현 해란구 유격구의 류정촌에서 10여호의 농가를 몽땅 불사르고 유격대원들과 30여명의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 때 살인귀들의 명단과 그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상이 날날이 적혀있었다. 주구청산대회에서는 김신숙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살인귀들의 죄행을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원쑤들에 대한 원한은 하늘에 닿았다.

정체를 감추고 군구사령부와 행정기관들에 잠입하여 국민당특무들의 지령에 따라 무장반란을 획책하고 있던 18명의 악질주구들의 악랄한 살륙만행을 폭로한 대회에서는 악질주구 7명을 그 자리에서 즉시 처단하고 나머지는 죄상에 따라 응당한 징벌을 가하였다.

주구들을 청산하는 대회는 다른 지방들에서도 활발히 조직되었다. 토비들이 폐망한 일제침략군잔여세력과 결탁하여 국민당군대와 합세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반토비작전은 처음부터 치렬하였다.

연변지구의 토비숙청성파는 동북지구에서 제일 먼저 달성한 큰 승리였고 이 지구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동북해방전쟁을 힘있게 지원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되였다. 남만에서는 리홍광지대가 폐망한 일제관동군 제125사단 참모장 후지다의 지휘밑에 일제째잔병들과 국민당특무조직의 토비들이 결탁하여 일으킨 폭동을 성과적으로 진압하였다. 지대는 남만에서 1946년 12월 림강보위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7개월동안 백두산지구에서 토비무리들을 기본적으로 소멸하였다. 길림시에서 조선청년들을 위주로 조직한 길림보안총대 제7대대는 제7지대로 개편된 후 화전에 지휘부를 두고 그 주변의 토비들을 숙청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였고 북만지역에서도 토비숙청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목단강군구사령부에서는 가장 악질적이었던 북만의 토비두목들과 토비들을 소멸하였고 네안에서도 목단강군구 파견원들의 지휘밑에 100여차의 전투를 거쳐 토비무리들을 숙청하였다.

반토비작전은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과 중국혁명가들이 진행한 공동투쟁이였다. 반토비작전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제3차 국내혁명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중국 동북지방에서 토비들이 더는 련합된 세력으로 활동할수 없게 되였으며 적들이 바라던 『내옹외합』은 파탄되었다.

* * *



천화위복, 북변땅을 친갑한 사회주의만세소리



새로 일떠선 거리와 마을들의 일부



혹심한 자연재해를 당했던 북변땅이 천지개벽 되였다.

어제날의 참혹한 대재앙의 흔적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공공건물들과 새 거리, 새 집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듯하게 일떠섰다.

누구도 그처럼 엄청난 피해가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셔지게 될줄은 생각도 못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조국의 북변 두만강연안에서는 해방후 기상판측이래 처음 보는 돌풍이 몰아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졌다. 며칠간 계속 내린 폭우로 공장, 기업소, 도로, 철길, 농경지 등이 파괴침수되고 6만 8 000여명의 사람들이 집과 가산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이 엄청난 대재앙을 두고 그 누구보다 마음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하도록 하시고 피해지역 인민들이 재난파 불행을 하루빨리 가시도록 하기 위하여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총동원, 총집중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에 따라 려명거리, 고산파수종합농장,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등 중요대상건설에 동원되었





던 인민군군인들, 돌격대원들을 비롯한 강력한 건설력량이 피해복구전선에 급파되었으며 온 나라의 지원속에 건설자재들과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이 피해지역에 신속히 도착하였다.

결코 정세가 평온해서가 아니였다. 미국의 핵전략폭격기들의 핵폭탄투하훈련과 남조선의 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벌어진 사상 최대규모의 미국남조선해상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정세가 침예화되었지만 조국에서는 수십만의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 인민들이 피해복구지역으로 파도쳐갔다.

피해복구전투의 가장 힘겹고 어려운 곳에 급파된 군인들은 백두의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살림집건설에서 혁신과 기적을 창조해나갔다. 회령시 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군인들은 현지에 도착한 즉시 배낭을 벗어놓기 바쁘게 건설자들과 함께 지대정리와 블록생산을 동시에 내밀어 20여일만에 살림집골조공사를 끝내는 전과를 올리였다. 려명거리건설에서 74일만에 70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한 모든 대상의 골조공사를 끝내여 세상을 놀래운 군인들과 건설자들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무산군에 나가 건설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매일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10여개호동의 5층살림집골조공사를 제일먼저 끝냈다.

그런가 하면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하여 연사군 피해복구현장에 늦게 도착한 군인들은 기계화수단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곳 지역 인민들과 건설자들과 함께 삽과 곡괭이 등으로 수천 m^3 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백 m^3 의 막돌을 채취하여 공사를 예정기일대로 내밀었다. 온성군과 경원군, 경흥군에 나간 군인들과 건설자들도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일념으로 낚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맑은 대상건설을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피해복구전선에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며 부닥치는 난관을 새로운 고조기로 전환시킨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해 재난이 휩쓸 대지에 새 마을, 새 거리들이 련속 일떠섰다.

전국각지의 인민들도 피해지역 인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심정에서 물심양면으

로 도와나섰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건재공업, 금속공업, 전력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혈육들을 돋는 심정으로 중산경쟁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수많은 세멘트와 철강재를 보내주었고 철도운수부문과 해운부문의 로동계급은 막대한 량의 화물을 북부지역으로 원만히 수송하여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각지 인민들은 친부모, 친형제의 심정으로 피해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식량과 옷, 부엌세간, 학용품과 현대적인 교육설비를 비롯한 수많은 기재와 소비품들을 지원하여 하나의 대가정으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





복구전투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중시, 인민중시, 인민사랑으로 한지에서 고생할 인민들을 위해 물고기를 비롯한 많은 양의 식료품들과 생활필수품들을 거듭거듭 보내주시였고 자연재해로 보금자리를 잃은 학생소년들이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북변땅에 수놓아지는 사랑의 전설들로 하여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기세는 더욱 충천해지였으며 북부피해복구전투를 통하여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뜻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남김없이 파시되는 속에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새 살림집, 새 마을들이 련이어 완공되였다. 하여 50여일만에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의 백수십개 지구에 3 000여동에 달하는 1만 1 900여세대의 5층, 3층, 단층살림집들이 일떠서 피해지구에 선경을 펼쳐놓았다.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북부피해지역 학생들



홍수가 언제났던지 그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게 깨끗하게 일떠선 거리와 마을, 공공건물들과 유치원, 학교들…

새 집들에 피해지역의 수많은 주민들이 강추위가 들이닥치기 전에 거의 동시에 따스한 보금자리를 렸으며 새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들에서 배움의 종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랑랑히 울려 퍼지였다.

입사하는 날 새 집문턱을 선듯 넘지 못하였다 는 회령시 주민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원래 살던 집파는 대비할수도 없게 크고 좋은 새 집이 이렇게 빨리 일떠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회령시 오봉지구살림집 34호동에서 살고있는 조혜영), 《집을 받은것만 해도 꿈만 같은 일인데 식량과 땔감을 비롯한 살림살이



에 필요한 모든 조건까지 갖추어줄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회령시 송학협동농장 농장원 신원일), 《세상에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은정이면 이보다 더 큰 은정이 어디에 있겠는가. 정말이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당(조선로동당)만이 창조할수 있는 현실이다.》(회령시 성북지구 6인민반 장남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새 집에 보금자리를 편 피해지역 인민들이 터치던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 행복의 웃음소리는 오늘도 그날의 사연을 전해주며 높이 울려퍼지고 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리광성





-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하여 -

건재품생산자들의 애국의 열정

오늘 조국강산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건축물 들에는 자기 나라의 자원과 원료, 자기의 기술로 건재품을 생산하여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할뿐아니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아름다운 애국의 마음들이 뜨겁게 수놓아져있다.

지난 기간 질좋은 건재품들을 생산하여 중요대 상건설장들에 보내준 자랑찬 성과를 거둔 천리마건재종합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거기에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파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부피해복구지역에 수많은 건재품을 생산하여 보내주어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공장의 로동계급은 새해의 첫걸음부터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되고 기업경영관리의 과학화가 실현되었으며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어있는 현실조건에서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을 밀착시키고 건재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한다면 질좋은 건재품들을 원만히 내놓을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업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

철판지붕재직장, 경량강철구조직장, 수지건재직장의 로동자들은 각이한 형태와 규격, 색갈을 가진 수지창과 늄창, 철판지붕재, 차열복합판, 수지판은 물론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철울타리, 쇠그물울타리, 각종 블록 등을 종전보다 더 생산해내고 있다.

지난해 7월말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 로동계급

의 헌신적인 노력은 조국강산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공장을 주체화, 현대화가 더욱 홀륭히 실현된 종합적인 건재생산기지로 꾸려나갈 응대한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다 밝혀주시였다.

지배인 손영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날로 늘어나는 건재품의 수요를 우리의 자원과 원료, 우리의 힘과 기술로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터전도 잡아주신 공장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리신 애국의 씨앗을 잘 가꾸어 꽃으로 피워나가는 길은 건재품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는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건재품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가겠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전선일



-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하여 -

광물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금골

굴지의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광물생산에서 용을 쓰고 있다.

기업소일군인 리창룡은 『지금 우리 기업소는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하여 부글부글 끓고있다. 올해 광물생산목표를 통이 크게 세운데 맞게 그 실현을 위해 자강력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일판을 박력있게 밀고나가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기업소의 심부와 상부의 쟁들에



서 더 많은 광석을 생산하기 위한 공격 전이 벌어지고있다.

광물생산의 중요한 몫을 담당한 심부지구 광산, 쟁들의 광부들이 혁신의 앞장에 서있다.

검덕광의 광부들은 여러가지 정황에 따르는 새로운 채굴방법을 창안도입하면서 매일 맡겨진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으며 금골광산의 여

러 소대들도 채준파 채광작업을 동시에 맡아 해제끼며 생산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특히 금골광산의 4.5경 고경찬채광3소대

와 영광쟁 박태선영웅소대에서는 앞선 굴진방법을 받아들이고 발파회수를 늘이면서 광석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지금 이들의 뒤를 따라 로은쟁, 은덕쟁 등 여러쟁의 많은 소대들이 광석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그런가 하면 기업소에서는 광물생산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해 수십리구간의 운광로선을 없애고 장거리벨트콘베이스송선으로 심부와 상부의 광석을 다양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업

제3선판장의 전경



제3선판장의 파쇄장에서



제3선판장의 마팡장에서

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와 함께 기업소에서는 선광장들의 기술개선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광석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제3선판장에서는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마팡, 파쇄계통을 개선한데 기초하여 부선계통개조도 적극 내밀면서 생산을 정상화해나가고있다.

특히 제3선판장의 로동계급은 질좋은 유색금속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이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선광실수률을 최대로 높

여 한g의 연, 아연정광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미 1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으로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제2선판장에서도 년간 많은 전기를 절약할수 있는 새로운 개조안을 또다시 현실에 도입하여 생산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더 높은 광물생산성과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것, 바로 이 한결같은 지향을 안고 검덕의 로동계급은 광물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집단의 힘과 기술로

평양시 제1인민병원 기능진단과의 의료일군들이 나라의 무상 치료제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놓고 힘과 지혜를 아끼지 않고 있다.

파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꾸리고 기능진단설비들을 현대화, 국산화하며 의료일군들 속에서 주요평가지표로 되고 있는 년간 과학기술발전 및 자질향상계획수행 정형총화에서 10여년째 우승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말

해주고 있다.

환자치료에서 초미의 문제인 진단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자각을 안은 이곳 의료일군들은 진단수준을 높이자면 진단설비가 현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고 그 실현에 중점을 박았다. 여기서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것은 설비를 현대화한다고 하여 수입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자체로 만들자는것이였다.

그리하여 파에서는 매 의료일

군들이 기능진단과 관련한 발명품을 한가지씩 내놓을 목표를 제기하였다. 사실 이것은 파성원들에게 있어서 아름찬 과제가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파장 김정순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신들메를 바싹 조이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비록 의학을 전공한 그들이였지만 생소한 분야에 발을 들여놓는것을 주저하지 않았던것이다.

파장자신부터가 먼저 연구과제를 맡아안는 한편 파성원들



비거는 16세기말 임진조국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군사통신련락에 처음으로 쓴 활공기이다.

그때 조선군대는 불의의 전투정황을 상부에 빨리 알리기 위하여 산성의 높은 곳에서 비거를 날리였다.

비거는 여러 사람이 탈수 있도록 나무대에다 가죽을 씌워 나래치지 않고 등등 떠있는 상태의 수리개나 따오기 모양으로 만들어져있다. 그리고 비거의 날개넓이는 비거 그자체와 실은 짐의 질량보다 더 큰 오를힘을 내



비 거

도록 수십 m²로 되어있다. 비거의 중심부에는 날개를 움직이는 장치, 바람을 만드는 풀무와 그를 동작시키는 장치, 바람을 저장했다가 내쏘는 바람주머니로부터 내쏘는 바람의 반동력과 날개의 움직임에 의해 활공의 안정성과 조종성을 담보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약 300m가량 활공할수 있

날개(엄지날개와 꼬리날개)들은 중심부의 여러 갈래의 줄들에 의해 연결되어있으면서 그것들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 비거의 아래쪽에는 땅에서 달리며 움직일수 있도록 수레바퀴가 달려있다. 비거(나는 수레)라는 이름은 이로부터 생긴것이다.

비거는 높은 령마루 또는 산성 같은데서 달리다가 활공을 시작하면 바람주머니로부터 내쏘는 바람의 반동력과 날개의 움직임에 의해 활공의 안정성과 조종성을 담보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약 300m가량 활공할수 있



이 가치있고 실용성있는 연구과제를 잡도록 세심히 지도하여주었으며 연구사업도 힘껏 도와주었다.

그것은 그대로 파의 기풍으로 되었다. 하여 파에서는 학위학직소유자들이 대학을 갓 졸업한 성원들을 위해 자기가 찾은 연구종자를 넘겨주고 외국참고서 번역도 도와주면서 그들이 가치 있는 발명품들을 내놓도록 며밀히 주었다.

이렇게 파에서는 앞선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뒤떨어진 사람은 앞선 사람을 따라잡

었다.

비거와 같은 나는 수단을 중세기에 중국과 도이췰란드에서도 생각하고 있었으나 직접 만들어서 날린 일은 없다. 비거와 매우 비슷하게 생긴 나는 수단은 도이췰란드에서 1845년-1855년간에 처음으로 구상되었는데 그것도 실용화되지는 못하였다. 비거는 어디까지나 활공기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뜨거나 내리는 원리는 보통의 활공기의 경우와 같다.

* * *

기 위한 집단주의정신이 활짝 꽂혀나게 되었다. 성파 또한 컸다.

파장 김정순이 연구제작한 휴대용실시간호흡감시장치가 그

가치와 리용에 있어서 매우 실용성있는 설비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박웅일, 홍진혁이 내놓은 내시경용광원장치의 국산화가 의학계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특히 이 광원장치는 세계적으로 널리 리용되는 빛원천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것으로서 종전의 수입품에 비해 제작원가가 낮고 전력소비가 적으며 수명이 대단히 길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 김은

옥이 내놓은 림상약리학연구성과와 초음파를 리용한 치료기구도 새롭고 그 치료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파장 김정순은 말하였다.

『우리가 거둔 성과는 발전하는 현실에 비해볼 때 아직 적은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 집단은 서로 돋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본래와 품모를 더 적극적으로 살려나감으로써 인민을 위한 의료봉사의 질을 보다 개선해나가겠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조 선 속 담 (안타까움)

- 입이 채구멍만 큼 많아도 말할 구멍은 하나도 없다
자기의 립장을 변명할 여지가 조금도 없게 되었을 경우에 이르는 말.

- 구두 신고 발등 긁기
구두를 신은채로 그우의 발등을 긁으면 가려운데를 시원히 긁을수 없는것처럼 요긴한데를 면바로 건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경우를 이르는 말.

- 목마를 송아지 우물 들여다보듯
목마를 송아지가 우물을 들여다보나 물은 마실수 없다는데서 무엇

을 뭉시 먹고싶어하거나 부려워하면서 안타깝게 마음을 조이는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

- 벼선목이라고 뒤집어보일가
벼선목과 같이 마음속을 뒤집어보이지도 못한다는 뜻으로 자기의 마음속을 드러내보일 방도가 없어 몹시 안타깝거나 답답함을 이르는 말.

참고: ① 벼선목이라고 오장을 뒤집어도 못보이고
② 벼선목이라고 뒤집어도 못보이고

* * *



만리마속도창조의 앞장에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새해 정초부터 많은 성파들이 이룩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콘크리트강화제의 연구도입으로 건설에서 공정기일을 앞당기고 건설물의 질을 훨씬 높이도록 하였으며 자외선피부보호용나노복합첨가물로 화장품의 종류를 더욱 다양하게 하고 폐가스산소분석기로 세멘트생산의 과학화를 다그치게 한 성파들도 있다.

려명거리건설, 북부피해지역건설에서와 평양화장품공장,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등 여러 부문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파들은 다름아닌 국가과학원 나노재료연구소 연구사들에 의하여 이룩된 것들이다.

만리마속도창조의 앞장에 서있는 과학자들을 만나보고 싶어 얼마전 우리는 국가과학원 나노재료연구소를 찾았다.

『우리 나노재료연구소는 날로 발전하는 주체과학과 더불어 재료과학발전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전자재료과학발전과 새 재

료과학발전, 나노재료과학발전의 단계를 걸어왔다.』라는 연구소의 일군 김익수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연구소를 돌아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몇 해 전에 건설된 연구소건물은 지열난방체계까지 도입된 6층짜리 건물이였는데 매 연구실마다 연구와 실험에 필요한 설비들이 그흔히 갖추어져 있어 연구사들은 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실험이 끝나면 첨단재료중간시험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먼저 자성재료연구실에 들리였다. 실장 신팔철은 자기들은 이미 저손실변압기용무정형철심에 대한 연구, 콘크리트구조물에서의 철근위치검측장치 등에 대한 연구에서 성공하였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연구사업에 대한 궁지를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각종 나노재료들의



립자크기, 비표면적을 측정하여 나노재료연구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측정연구실과 자성류체를 개발하고 연구를 완성한데 기초하여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는 일용품연구실 등을 돌아보고 연구소의 첨단재료중간시험공장에서도 들려보았다. 거기에서는 나노실리카공기겔보온칠감생산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을 놓고 에너르기재료연구실 연구사들이 도입을 위한 토의를 하고 있었다. 연구소의 어디에 가나 과학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떠밀어나가고 있는 연구사

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혁소개실과 과학성과전시실에서 연구소가 걸어온 발자취들을 다시금 더듬어보는 우리에게 김익수는 말하였다.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다. 지난 기간 우리는 자외선차폐제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500여



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우리 과학자들이 서있어야 한다는것이 우리 연구소연구사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우리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더 큰 연구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만리마속도창조의 앞장에서 계속 내달려나가겠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특등상을 받은 학생



지난해 로씨야에서는 제6차 라흐마니노브명칭 국제음악콩클이 진행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150여명의 우수한 피아노연주가들이 참가한 경연에서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 학생 한일영은 특등을 쟁취하였다.

《한일영의 연주가 가장 마음에 든다.》, 《12살 소녀의 연주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훌륭하다.》, 《연주가 개성적이다.》, 《음악성이 특출하다.》 …

높은 예술적 기교와 섬세한 음악적 감정으로 작품들을 훌륭히 연주한 한일영의 피아노연주를 두고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터친 찬탄의 목소리이다.

복잡한 기교와 세련된 형상을 요구하는 곡들도 숨씨있게 연주하고 높은 기교와 재빠른 속도,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어려운 곡들도 완전 무결하게 연주하여 세계피아노계에 파문을 일으킨 한일영.

그의 남다른 예술적 재능은 어렸을 때부터 나타났다. 4살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유치원시절에 벌써 높은 형상과 세련된 기교를 요구하는 어려운 곡들을 능란하게 연주하여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음악학원 지도교원 허예순의 말에 의하면 천성적으로 음악적인 감수성이 빠르고 연주에서 재



치가 있
으며 감
정이 풍부한
것이 한일영에게
서 찾아보게 되는 남다
른 특징이라고 한다.

그는 8살에 로씨야에서 있는 제3차 국제예술콩클 《화성》에서 특등을 쟁취하였고 같은 해에 있은 제9차 국제기악연주가콩클 《은음차》에서 특등컵을, 피아노 1부류에서 1등컵을 받았다.

피아노연주는 물론 작곡도 하고 있는 그는 지난해 콩클 폐막식 출연에서 자기가 창작한 피아노곡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연주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룡진



중국 흑룡강성 냉안시 강남향 최창국형님 앞

보고싶은 형님에게

형님,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형님과 헤여진지도 수십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젠 형님도 80고개를 훨씬 넘겼는데 건강이 어떠한지 몹시 걱정됩니다.

동생들이인 세국이와 병국, 흥국이와 순금이도 다 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서야 형님에게 편지를 쓰는 저를 욕해 주십시오.

지나간 인생길을 돌이켜보느라니 혈육들 생각이 자꾸 나서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형님과 같이 우리 동생들이 어릴적에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길 때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소꿉시절 우리가 매일파 같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 지주집에 바치던 일입니다. 그



때 형님은 그 악독하기 그지없던 지주를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래서 형님은 일제가 패망한 후 중국의 동북지방에 조선인부대가 조직될 때 제일 선참으로 입대하여 지주와 반동들을 호되게 탐색했습니다. 저도 그후 형님의 뒤를 따라 입대하였고 우린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형님, 그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領導밑에 우리 조선사람들이 중국혁명을 도와 동북땅을 해방하기 위해 피흘려 투쟁한 역사적 사실들을 담은 도서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가 지난해 조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자주 그 책을 보며 형님과 함께 넘어온 사선의 고비들을 되새겨보곤 합니다.

형님, 제 말만 하다보니 저와 우리 가족의 소식을 미처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의 동북해방전쟁시기 총을 잡았던 저는 그대로 미제가 도발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싸우다가 전승후에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오래동안 무력부문에서 복무하였습니다. 나이가 되여 제대된 후에는 조선자연보호련맹 평양시 모란봉구역위원회 일군으로 사업하다가 지금은 구역안의 전쟁로병들을 책임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도 잘 지냅니다. 이 동생에게는 딸이 다섯이나 됩니다. 그 애들이 이제 다 출가하여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여 저에게는 증손자, 증손녀까지 생겼습니다. 사실 딸들을 시집보낼 때 저는 군인들을 사위로 택했습니다. 딸들도 한생 군사복무를 하는 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렇게 하는것을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집안은 군인가정이 되였고 그것이 가풍으로 되여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지고있습니다. 그 나날에 막내딸 은하가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고 얼마전에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한 손자사위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받아안았습니다.

이렇게 집안식구들이 영광을 지니는것을 볼 때면 나나 우리 로친네는 한없이 따사로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사는 궁지와 자부심을 깊이 느끼군 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힘들세라 다 심히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그이의 품이 있어 행복이 넘치는 우리 가정의 오늘이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집안에 기쁨이 있을 때마다 형님을 비롯한 혈육들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앉아 함께 기쁨을 나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형님, 동생들과 함께 고국에 한번 오십시오. 그 때 우리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나누어봅시다.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그럼 상봉의 그날까지 형님이 몸성하기를 바랍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인흥2동 76번지
최윤극동생으로부터



26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리원규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나는 정말 직업선택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생말년까지 사람들의 존경속에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뱉은 사람은 평안남도 덕천시 편의봉사관리소 덕천증명사진관 책임자 리원규이다. 그는 38년째 자기 직업을 놓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딸들인 려수, 려화와 함께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가 사진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30살때부터였다. 사실 그는 일본의 효고현 히메지시에서 태여나 어린시절을 보내다가 11살때인 주체49(1960)년에 부모들과 함께 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조국의 사랑속에서

당시 인민학교와 중학교과정을 마친 그는 덕천기술대학을 졸업하고 군사복무를 하였다.

그 나날 그의 가슴속에 품고 있던 소망은 과학연구부문의 연구사가 되는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제대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조국으로 올 때 타고온 귀국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고 한다.

《원규야, 아버지는 자주 이 사진을 보며 생각하군 한다. 저주로운 일본땅을 떠나 고마운 조국의 품으로 향하던 그 감격스럽던 때를 말이다. 그때를 돌이켜보게 하는 이 사진이 얼마나 추억깊고 귀중한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사진을 더 남기지 못했는지 후회되는구나. … 난 네가 사람들에게 이

런 소중한 추억을 안겨주는 사진사가 되였으면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는 일본땅에서라면 돈을 벌기 위해 사진업을 한다지만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이 없는 조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조국에 와보니 사람들모두가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이 되어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는것을 더없는 궁지로 여긴다고 말하였다.

아버지의 이 말은 원규의 마음을 끓게 하였다. 하여 그는 사진사가 되였다. 사실 처음 해보는 일이였지만 힘든줄 몰랐다. 하지만 일이 보기와는 달라 알아야 할것이 많았고 숙련이 필요했다. 그는 남보다 휴식을 적게 하며 사진기에 정통해야 하고 사진학에 대한 연구와

학습도 깊이 해야 하였다. 얼마 후부터는 그가 찍은 사진이 사람들의 호평을 받게 되였다. 이에 신심을 가진 그는 가정과 학교, 탄광 등을 찾아 이동봉사를 진행하였다.

어느 한 탄광의 모범혁신자들을 위해 이동봉사를 할 때였다. 수백m지하에 있는 채굴막 장과 굴진막장을 오가며 탄부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그는 그길로 사진관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현상된 사진을 보

는 순간 월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혁신자들의 궁지에 넘친 모습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탄광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그날 그가 완성된 사진을 가지고 탄부들을 찾아갔을 때는 밤이 푹 깊었을 때였다. 재촬영을 하

느라 먼길을 두번이나 오고갔지만 탄부들이 좋아하는 모습은 그에게 더없는 궁지를 안겨주었다. 그러한 궁지는 가정들의 결혼식사진과 환갑사진, 유치원생들과 학교학생들의 졸업사진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장들과 협동농장들의 로력혁신자들을 사진화면에 담던 나날들에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이렇게 세월은 흘렀다. 그 나날 그는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진사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였고 하여 한개 지역을 벗어나 시

적으로도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였다. 분망한 하루일이 끝난 후면 그는 자기의 작은 수첩에 적혀있는 영예군인들과 전쟁로병들의 집에 들려 제기된 사진을 찍어주는것을 잊지 않는다. 그의 가장 행복한 추억들중의 하나는 생일을 맞는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어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오늘 그는 사진사로 자진한 두 딸에게 후회가 없는가고 묻곤 한다. 그러면 딸들은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사진사직업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한것은 그들이 얼마전 아버지와 함께 사진의 질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



두 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간다.

을 공동연구하여 완성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지금 그 기술을 리용하여 제작한 사진에 대한 사람들의 호평은 대단하며 그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날로 커가고 있다.

날로 커가는 사회와 집단의 믿음과 인민의 존경속에 그들은 평범한 사진사들이지만 인민의 복무자라는 궁지가 가슴속에 꽉 차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휴식날에 가족과 함께



친절한 봉사로 주민들의 호평을 받는 리원규





청산땅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고향소식

청산땅이 전하는 이야기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해가는 우리의 취재길은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리에로 이어졌다.

빠스에서 내려 리소재지로 향하는 우리의 눈앞에 취득별의 풍경이 펼쳐졌다.

적재함이 넘쳐나게 거름을 가득싣고 규격화된 논배미들을 누비는 뜨락또르들, 결싸한 일솜씨로 벌의 곳곳에 김이 물물 피여오르는 거름더미들을 무저놓는 농장원들...

강추위는 모든것을 명명 얼구었지만 신년사과업 판철에 떨쳐나선 청산리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봄이 깃든듯싶었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리의 일군인 김인식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청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적이 수없이 어려있는 뜻깊은 고장입니다.

절세위인들의 세심한 사랑과 뜨거운 손길에 의해 우리 고장은 천지개벽되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된 고장으로 온 나라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리의 여래곳을 돌아보았다.

석두재아래에는 여러가지 색갈의 외장재로 단장한 소총, 단총살림집들, 상점, 청산원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이 구색이 맞게 일떠

서있었다. 청산농업대학의 창가마다에는 고향땅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갈 주인공들의 열정넘친 모습이 비껴있었고 조선식기와지붕을 한 문화회관에서는 새해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농장원들과 그들을 고무하는 유치원어린이들의 노래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흥그럽게 하여주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실현되어 이곳 농민들은 논밭갈이로부터 날알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기계로 하고있었으며 모든 생산지휘체계가 작업반에 이르기까지 컴퓨터화되어 농장의 관리운영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적인 청산리당총회를 지도하여주신 집



우리는 최근년간 리에서 새로 건설하였다는 우렝이서식장과 복합비료공장, 태양열온실과 벼섯종군장도 돌아보았다. 한겨울에도 푸르싱싱한 남새와 벼섯을 정상적으로 수확하고있다는 농장원들의 이야기도 좋았고 토양과 농작물에 맞게 생산한 여러가지 복합비료와 우렝이에 의한 영농방법으로 농사에서 좋은 작황을 거두고있다는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리소재지뿐아니라 원동, 황산, 동산 등 그 어느 마을에 가보아도 현대미가 나면서도 아담한 살림집들이 있고 주변의 야산들마다에는 사파, 배, 살구나무들이 비록 겨울이기는 하여도 봄날의 꽃철을 련상시키며 청산리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 있었다.

우리는 미국 뉴욕에서 살고있는 최운혁동포의 외조카 리농곤의 집에도 들리였다.

집을 돌아보는 우리에게 리농곤은 말하였다.

『28년전 큰아버지가 고향을 다녀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큰아버지는 고향땅의 여기저기를 밟으면 천지개벽되었다고 몇번이고 꼽씹었습니다. 만약 큰아버지가 더더욱 변모된 고향에 또다시 와본다면 더욱 놀라와할것입니다.』

돌아볼수록 그 옛날 사람 못살 곳이라 버림받던 여기 석두재기슭의 청산리의 전변이 놀랍기만하였다.

리의 선경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김인식은 이런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인 주체35(1946)년 6월부터 80여 차례나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뉴욕에서 살고있는 최운혁동포의 외조카 리농곤가정



수령님께서는 때로는 탈곡장멍석 위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였고 때로는 청산별의 짠물피해가 냅려되시여 몸소 저수지의 물맛까지 보아주시였으며 때로는 집집의 쌀독과 가마뚜껑도 열어보시고 현금수입도 계산해주시면서 농민들의 생활형편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언제나 청산리를 자신의의 마음속에 안고사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새로 만든 뜨락또르와 농기계들이 나오면 먼저 보내주시여 이곳에 종합적기계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해주시였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시며 20여 차례나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산리가 모든 면에서 온 나라의 앞장에서 나아가도록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정녕 그 사랑은 자양분이 되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스며들었다. 드넓은 기름진 땅과 삶의 보금자리로 일떠선 문화주택들, 병원과 유치원, 과수원과 온실…

청산리는 절세위인들의 그 사랑, 그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며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앞으로 더욱 훌륭히 변모될것이다.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서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경제개발구창설에서 특혜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1)

공화국정부는 국내외의 유리한 생산요소들을 집중시켜 경제개발구창설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구창설에서 특혜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다.

공화국정부가 경제개발구창설에서 실시하는 특혜제도는 외국투자기업들의 투자, 세금납부, 토지 및 건물리용, 기업창설, 생산과 판매, 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여러가지 유리한 조치들이 속 한다. 여기에서 기본은 특혜적인 세금 및 부동산 이용제도의 실시이다.

공화국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경제개발구에서 특혜적인 세금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한다.

특혜적인 세금제도는 국가가 경제개발구에 들어온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취하는 여러가지 유리한 법적조치들이다.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특혜적인 세금제도는 국가가 제정하는 세금법과 규정, 질서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시된다.

우선 공화국정부는 경제개발구에서 세금종류를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외국투자기업들에 적용하도록 한다.

공화국정부가 외국투자기업들에 적용하는 세금종류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영업세, 거래세, 지방세, 상속세, 자원세 등이며 해당 기업이 어떤 형태의 기업인가에 따라 다 부과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부과한다.

또한 공화국정부는 경제개발구에서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면세와 감세제도를 바로 수립하고 실시한다.

특혜적인 세금제도에서 기본은 면세와 감세제도이다.

면세와 감세제도에서 기본은 국가가 장려하는 대상들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들에게 일정한 기간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소시켜주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제45조 기업소득세률에는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라고 규제되어 있으며 제53조 기업소득세의 감면에는 《경제개발구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여 준다.》

라고 규제되어 있다.

공화국정부는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소득세를 면제해주거나 감소시켜준다.

로임인 경우 해당 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로 임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개인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제공소득, 기업경영에 대한 봉사소득 등에 대해서는 해당 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공화국정부는 외국투자기업들이 재산세, 영업세, 거래세,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면세와 감세제도를 실시한다.

외국투자기업들이 새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몇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주며 경제개발구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우리 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하여 준다. 하부구조건설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하여서는 영업세를 면제하여 주며 해당 기업이 일정한 기간 룬전기재를 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면제하여 준다.

또한 공화국정부는 경제개발구세무기판들의 역할을 높여 특혜적인 세금제도실시목적이 원만히 실현되도록 한다.

특혜적인 세금제도실시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는 경제개발구세무기판이다. 특혜적인 세금제도는 경제개발구창설을 둘러싸고 외국투자리용과 관련한 국가의 리익과 리익획득과 관련한 외국투자기업들의 리해관계사이의 호상관계를 민감하게 반영한다.

공화국정부는 경제개발구의 세무기판들이 세무법에 준하여 세무등록제도를 바로세우고 실시하도록 한다. 세무등록은 외국투자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얻게 되는 소득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겠다는 것을 법적으로 담보하면서 그것을 경제개발구세무기판에 등록하는 사업이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외국투자기업들이 세금납부를 담보하는 세무등록증을 세무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조건에서 기업경영을 허가한다.

인민경제대학 부교수 강용룡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보고

나는 5년전에 조국에 처음 다녀온 후 이번에 두번째로 조국땅을 밟았다. 정말이지 꿈속에서도 그려본 조국이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더 낫다고 조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하여 말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조국이 어떻게 되여 그토록 눈부시게 발전하고있는가에 대해 나는 여러모로 생각해보았다.

나는 그 답을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펼쳐진 김정일화축전장에서 찾게 되였다.

사실 나는 류달리 꽃을 사랑하기때문에 조국방문일정이 바쁜 속에서도 시간을 내여 축전장을 돌아보았다.

축전장은 내가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홀륭하였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꽂바다를 이루었는데 그 꽃들은 크고작은 공장, 기업소들과 가정들에서, 지어 소학교학생들까지 정성껏 퍼워 전시한 꽃들이였다.

조국인민들뿐만아니라 세계의 진보적인사들과 해외동포들이 보내온 김정일화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축전장에 넘쳐나는 위인칭송의 열기에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한없는 그리움과 그리고 한평생 사회주의강국건설념원을 안으시고 불철주야 혌신의 길을 걸으신 그이의 유훈을 기어이 실현할 조국인민들의 굳센 의지를 절감할수 있었으며 인민들의 그의지가 조국땅우에 번영의 새



모습을 펼쳐놓고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온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따르며 세상에서 제일 홀륭한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해나가는 조국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어 있을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박미옥



감격의 나날들을 잊을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청년전위들의 혜불야회에 참석하시여 경기장을 꽉 채운 수많은 관중들속에서도 제일먼저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손을 흔들어주시였으며 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대회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을뿐만아니라 해외동포청년들과는 별도로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여 결국 우리는

경애하는 그이를 모시고 두번이나 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도 마련해주시고 우리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사랑의 조치까지 취해주신 원수님이시였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여 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해외동포청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를 절감하게 되였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해외동포청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를 절감하게 되였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도 마련해주시고 우리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사랑의 조치까지 취해주신 원수님이시였다.

술하에 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에게 더 정을 기울이시는 친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안으며 나는 이처럼 사랑과 정으로 꽉 차있는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인민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가한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동포청년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이 조국을 위한 사업, 동포사회를 위한 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나의 모든 힘을 다해나가겠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가나가와 쥬호꾸지부 로희룡



인민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꿈을 안고 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자연히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래일이 있을수 없다는 말이 되새겨진다. 한것은 꿈을 안고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의 순간순간을 값있게 보내며 래일을 맞이해 가기때문이다.

그렇게 놓고보면 인간의 꿈이란 달리 말하여 그의 소원이고 희망이며 목표라고 말할수 있다.

하다면 매 사람마다 꿈이 있듯이 매개 나라와 인민에게도 공통된 꿈이 있을것이다.

조국인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꿈 다시말하여 희망과 소원, 목표는 파연 무엇이겠는가.

굳이 이러한 물음을 나자신에게 스스로 제기하고있는것은 조국방문의 길에 오를 때마다 나날이 변천되어가는 조국의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는 감정이 매우 크고 류다르기 때문이다.

조국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조건에서도 오직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원료와 자재로 인공지구위성들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였으며 핵시험들에서도 성공하였다.

뿐만아니라 조국인민들은 남들이라면 아마 10년동안에 해야 할것을 1년도 안되는 기간에 불이 번쩍 나게, 그것도 세계적 수준으로 매우 훌륭하게 이룩해놓고있다. 창전거리와 미래 과학자거리에 이어 려명거리가 훌륭하게 건설되고있으며 나라의 곳곳에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새 공장들과 병원들 그리고 문화시설들 등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실지 조국땅의 그 어디에 가보아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현실로 구현되어 꿈같은 선경들이 펼쳐지고있다.

지난해 조국의 북부피해지역에 달려나간 군대와 인민들은 전화위복의 기적을 떨치며 1만 1 900여세대의 살림집들과 타아소, 유치원, 병원들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 피해지역의 인민들은 살림살이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새 집들에 강추위가 들이닥치기 전에 보금자리를 떠고 새 생활을 시작하였다.

바로 두해 전에도 조국의 라선땅 인민들이 큰물피해를 입었었는데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그들에게 빨리 새 집을 훌륭히 지어주자고 하시며 현지에 나오시여 건설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조국인민이 세기를 놀래우는 무한대한 기적의 힘을 발휘해 나갈수 있는것은 인민들의 가슴속에 아름다운 래일에 대한

꿈을 안겨주시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하여 쉬임없이 달리게 하는 지혜와 열정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만이 짹 차있다.

그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하는 인민이 짹 차있는가를 나는 지난해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자자구구 읽어보며 더 잘 알수 있었다. 그 보고에는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라는 투쟁구호가 명시되어있고 《인민》이라는 단어가 270여번이나 들어있다.

세계를 둘러보면 조국인민처럼 마음껏 꿈을 꾸는 인민, 우리 조국처럼 꿈을 꾸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

인민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일은 언제나 후세에 길이 전해지기 마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인민관을 지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많은 일을 하여 인민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해외공민이 되고싶은것이 내가 간직하고있는 꿈이다.

내가 지난 시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해놓았다면 그것은 마음뿐이였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는것은 곧 기쁨이고 행복

고국은 우리의 심장속에 있다

나는 고국에 처음으로 왔다. 꿈에도 와보고싶었던 고국이였다.

우리 아버지의 고향은 함경북도 길주군이고 어머니의 고향은 강원도인데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어릴 적에 고향을 떠났지만 눈을 감을 때까지 한번도 고향을 다녀오지 못하였다.

나는 고국땅에 들어서는 첫 순간에 마음속으로 《아버지,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한, 그토록 와보고싶어한 고국에 제가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지었다.

만약 고국이 미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적인 고립압살책동과 전쟁책동에 굴복하여 핵을 쥐지 않았다면 조선은 이미 그들의 노예가 되였을것이다.

고국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기에 우리에게 조선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고국은 나를 비롯한 재중동포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다.

이번에 조국통일을 위한 통일자전거행진에 참가하여 고국의 여리곳을 다니며 직접 눈으로 보니 그 감격과 기쁨은 더욱 크다. 특히 평양의 건축물들을 보면서 나는 고국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

이다. 그것은 그대로 민족의 꿈을 실현하는 길과 잇닿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얼마전부터 조국과 거래하는 우리 회사의 명칭을 《민몽원》이라고 고쳐부르고있다.

《민몽원》이라는 이름은 전

한 령도밑에 조선민족의 높은 자존심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다는것을 더 잘 알게 되였다.

나는 돌아가면 동무들과 자식들에게 고국의 인민들이 성실한 노력을 이룩해놓은 훌륭한 모든것에 대해 그대로 이야기해주겠다.

우리는 비록 해외에 살고있지만 조선민족임을 순간도 잊지 않고있으며 조선의 통일을 애타케 갈망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것이며 우리의 심장속에 간직된 고국은 끝없이 풍성번영 할것이라는것을 나는 믿어의심치 않는다.

중국 흑룡강성 복단강시 박미숙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의심치 않는다.

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나의 모든 힘을 다 바쳐나가겠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송영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한 동포들

고국방문

통일의 날을 앞당길 한마음안고

- 통일자전거행진단에 망라된 재중동포들 -

통일열의를 안고



릉라곱등어관에서



지난해 10월초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에 망라된 재중동포들이 조국의 여러곳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조국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니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에 한껏 넘쳐난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살길은 통일이며 그길만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아픔을 가시는 길이라 는것을 더욱 뼈저리게 절감하게 된다고 하였다.

웅장하면서도 특색있게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고 과학기술을 앞세워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조국인민들의 의지를 알게 된 동포들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 하나된 조선을 그려보며 기슴을 설레였으며 개건된 중앙동물원과 새로 일떠선 자연박물관을 돌아보면서는 인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는 우리 조국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가슴뜨겁게 새겨 안다.

붉고 누런 단풍잎으로 단장을 한 가을날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구월산에서 동포들은 통일을 그리는 하나의 마음을 안고 우리 민족의 노래와 춤마당을 펼쳐놓았다.

우의탑을 찾은 동포들속에는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에 참전하였던 아버지들을 추억하며 눈시울을 적신 리명근, 전춘자부부도 있었다. 그들은 선렬들이 피흘려 지킨 조국땅에 통일만세의 환호성이 울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아름다운 모란봉에 오른 그들은 평양의 경치를 한눈에 부감하며 북파 남의 온 겨례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속에 안겨살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성있게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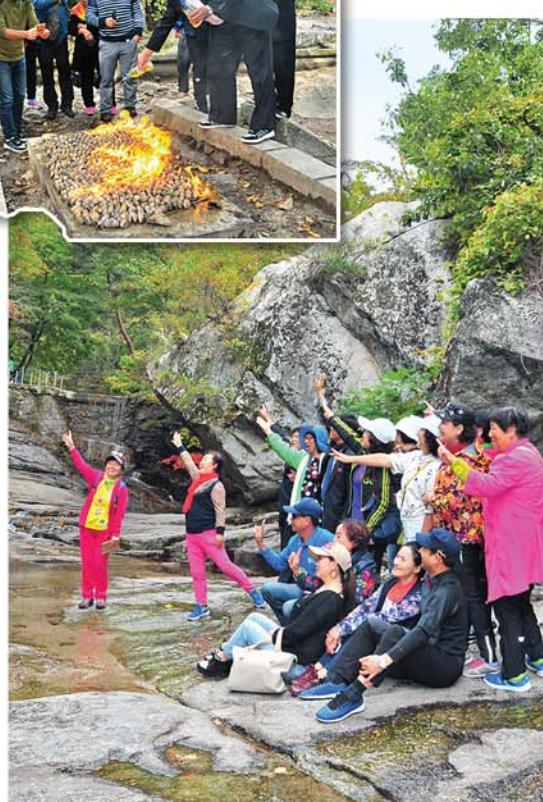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글을 남기는 동포

글 본사기자 련 해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구월산에서



자연박물관을 돌아보았다.



동방문화의 개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구려의 과학

고구려는 사회생활의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과학과 기술을 비롯한 문화의 여러 부문에서도 다방면적인 발전을 이룩한 선진문명국이였다.

특히 그 우수성과 선진성이 있어서 높은 경지에 이른 고구려의 과학은 고구려가 강국의 위용을 떨칠수 있게 한 중요한 비결의 하나로 되였다.

자료의 부족으로 고구려과학발전의 전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힐수 없지만 기상학과 천문학, 수학과 력학, 의학을 비롯한 일부 부문들의 발전실태를 놓고서도 고구려의 전반적 과학발전수준을 잘 알수 있다.

농업을 주되는 생업으로 삼고있던 고구려에서는 농업생산의 발전을 위하여 일찍부터 기상학과 천문학을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켰다. 옛 문헌기록들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가물과 큰 물, 폭풍과 지진, 우박과 서리, 고온현상 등 이상기후현상들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일식과 월식, 혜성과 류성(별찌), 태양을 비롯한 천문관측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에서 기상 및 천문관측사업이 일찍부터 엄격한 제도와 규률밑에서 치밀하게 진행되였으며 언제나 관측준비가 빈틈없이 되어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물론 당시 이웃나라들에서도 천문관측과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그 정확성과 심도에 있어서 고구려만큼 구체적이지는 못하였다.

실례로 46년 11월에 고구려에서 혜성이 남쪽 하늘에 나타났다가 20일만에 없어졌다고 한 기록이라든가 또 158년 2월에 북두칠성부근에 혜성이 나타났다는 기록, 640년 9월에 태양흑점을 관측한 기록 등은 주변나라들의 각종 기록들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치있는 천문관측자료들로서 당시 높은 경지에 도달한 고구려의 천문학발전수준을 뚜렷이 보여준다.

고구려 사람들의 높은 천문학지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은 석각천문도인데 1395년 조선 봉건왕조에서는 이것을 복원하여 《천상렬차분야지도》를 만들었다. 307개의 성좌에 1 475개의 별을 새겨놓은 석각천문도는 북극을 중심으

로 천체를 평면에 새겨놓은것으로서 여기에는 춘분점과 추분점의 위치, 28수의 매개 기준별에 대한 좌표, 적도원과 황도원, 경도원이 밝혀져있고 은하수도 그려져있어 고구려과학기술의 정수를 이루고있다.

고구려에서는 천문학뿐아니라 수학과 력학도 상당히 발전하였다.

오늘날의 천문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천문도를 고구려시기에 이미 작성하여 만들었다는것은 높은 수학지식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으며 이것은 고구려에서 수학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에서 력학지식을 완벽하게 응용한 실례로서는 무덤칸들에 설치된 돌문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즉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의 문칸에서 앞칸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설치한 돌문(지금은 서쪽문만이 온전하게 남아있다.)의 제작기술을 보면 육중한 돌문이 손가락 하나로 밀어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돌다루기기술이 력학지식경험에 기초하여 높은 발전을 이루고있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의학 역시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 고구려에서는 병치료에 침구료법과 약재 및 약물료법을 위주로 적용하였는데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았던지 침을 가지고 머리카락속이 비웠다는것을 알아냈고 주변나라들까지도 고구려의학은 죽을 사람도 살린다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며 고구려의 치료방법을 널리 소개하고 치료에 리용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의학책 《로사방》과 같은 풍부한 림상경험지식에 대한 의학고전들도 편찬되었으며 이를난 의학자들이 주변나라들에 나가 우수한 의학기술을 전파함으로써 동방나라들의 의학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천문학과 수학, 력학과 의학을 비롯한 과학의 일부 분야들만 놓고보더라도 당시 고구려의 과학이 얼마나 뛰어나고 선진적이였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엿볼수 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황금식

역사인물

애국문화활동가 리준



일주구단체인 《일진회》에 대항하여 애국적지식인들과 함께 《공진회》를 조직하고 친일주구들과 봉건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였다.

《공진회》가 강제해산당한 후 그는 1905년에 《현정연구회》를 조직하였으며 1906년에 애국문화운동가들과 함께 서울에서 《한북홍학회》를 조직하여 청소년들과 대중속에서 애국심과 교육열을 고취하였다.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여난 리준(1859년-1907년)은 일제와 유미자본주의열강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과 봉건통치 배들의 매국배족행위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위험에 처하고있던 시기에 성장하였다.

로일전쟁을 계기로 일제의 조선침략책동이 강화되자 그는 벼슬을 그만두고 반일애국운동에 나섰다. 그는 1904년 6월 일제의 토지약탈을 반대하는 서울시민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이끌었으며 그해 12월에 친

유모아

말 그대로 하다

한사람이 의사를 찾아갔다.

그를 진찰하고난 의사가 말하였다.

『약은 당신한테 소용없으니 어디 조용한 시골에 내려가 한달동안 휴식하면서 일찍 자고 매일 우유를 마시며 산보도 많이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하루에 한대만 피우시오.』

한달후에 그 사람이 의사를 찾아와 말하였다.

『선생님이 하라는대로 하니 확실히 몸이 좋아졌는데 하루에 담배를 한대 피우는것만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 나이에 담배를 배운다는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월대보름달에 담은 소원

어느날 저녁 제가 평양의 대동강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려사유적인 련광정앞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의 몇걸음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5~6살난듯 한 어린애가 문득 련광정을 가리키며 『어머니, 전에 여기 와서 할머니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둑근달을 구경했었지요. 정월대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말하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나요?』라고 어머니에게 묻는것이었습니다.

아들애의 물음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날아다니는 배를 만들고싶다면 소원?! 우리 경철이가 공부를 잘하면 얼마든지 그 소원을 이룰수 있지.』

이윽토록 그들의 뒤편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련광정으로 발길을 돌리었습니다.

련광정에 오르니 눈앞에는 어둠을 밝히며 타오르는 주체사상탑의 봉화와 함께 살얼음이 덮인 대동강과 하늘중천에 걸려있는 초생달이 안겨왔습니다.

초생달이 둑근달로 되면 보름이 되는것은 하나의 자연현상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있다싶이 달은 등글어졌다가 반달이 되고 초생달이 되었다가는 다시 반달이 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둑근달이 되는데 달이 제일 등글어지는 날이 바로 음력 15일로서 이날을 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설명절 다음에 오는 첫 보름날을 정월대보름이라고 하며 민속명절로 크게 쇠였습니다.

정월대보름날을 즐기는 풍습은 삼국시기부터 흘러왔는데 고

려시기에 민속명절의 하나로 널리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정월대보름명절은 보통 14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날은 작은보름이라고 하고 15일은 대(큰)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대보름명절에 새해의 행운과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소박한 냄원을 반영한 여러 가지 흥미있는 행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에는 어디에서나 달맞이, 쥐불놀이, 탈놀이, 연띠우기, 바람개비놀이, 다리밟이, 수레싸움놀이, 바줄당기기 등으로 흥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달의 형태와 빛깔을 보고 그해 농사의 흥흉파 가물, 장마를 예측하기도 하고 떠오르는 달을 먼저 보는 사람의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면서 남보다 먼저 보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정한 달을 바라보는 감정이 참으로 류다르기때문일것입니다.

떠오르는 둑근달은 하나이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소원은 서로 다르겠지만 우리 인민들도 두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더 밝은 래일을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드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마음들에 떠받들려 애국의 불길이 타번지고 만리마속도창조의 새 려사가 펼쳐지는 우리 조국, 인민들이 오랜 세월 꿈파 리상으로만 그려보던것이 현실로 꽂혀나는 우리 조국에 아름답고 휘황한 래일이 마중오고 있습니다.

그럼 동포여러분,

다가오는 정월대보름날 저녁,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휘영청 밝은 달에 마음속소원을 아뢰일 동포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려해



개성의 려사유적을 찾아서 (3)

- 왕건왕릉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개성의 려사유적 가운데는 왕건왕릉도 있습니다. 왕건왕릉은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태조 왕인 왕건(877년~943년)의 무덤입니다.

왕건왕릉은 송악산의 가지줄기가 뻗어내려온 만수산의 나지막한 등성이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룽문앞의 한옆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이 새겨진 고려태조 왕건왕릉개전비가 정중히 세워져 있고 이 비의 후면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업적을 칭송한 현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릉문으로 들어서면 제당과 비각이 있는데 제당안에는 왕건의 화상이 있으며 그밖에 고려를 창건하고 고구려의 통일지향을 계승하여 민족을 통합하여나간 왕건의 생애에서 의의있었던 장면들을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2개의 비각안에는 각각 왕릉의 연혁을 기록한 룽비와 왕릉을 건설하고 보수정비한 내용을 기록한 룽비가 있습니다.

제당과 비각을 지나면 높은 단위에 전형적인 고구려식 돌칸흙무덤의 모습을 갖춘 왕건왕릉이 있고 왕릉(무덤)의 바깥둘레에는 쥐, 소, 범 등 12지신을 새긴 12각의 병풍돌이 세워져 있으며 그밖으로 돌란간을 둘렀습니다. 무덤무지의 높이는 8m이며 병풍돌의 대각직경은 19m입니다. 왕릉의 네 귀에는 돌범이 놓여 있으며 앞에는 상돌과 망주석, 돌등 등이 있습니다.

왕릉이 있는 곳보다 조금 낮은 둘째단과 셋째단에는 왕건을 따라 통일국가수립에 공헌한 개국공신을 비롯한 8명의 측근신하들(무관들과 문관들)이 4명씩 량켠에 갈라서 있습니다.

릉의 둥문을 열고 문길(안길)을 따라가느라면 무덤칸이 나집니다. 무덤칸내부에는 중심에 큰 판석으로 된 판대가 놓여 있고 좌우벽체아래에는 유물을 올려놓는 긴 대가 있으며 동, 서, 북쪽의 세 벽에는 참대와 소나무를 비롯한 그림들을 그린 벽화가 있습니다. 동벽에는 청룡과 매화나무와 참대가, 서벽에는 백호와 소나무 그리고 매화나무가, 북벽에는 현무도가 있으며 남벽에는 벽



화가 없습니다.

왕릉과 그 주변에서 옥띠고리, 띠고리모양의 금구, 국화무늬박이청자잔, 청동주전자, 금동좌상, 금동장식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백옥을 네모나게 가공한 옥띠고리는 왕건이 생존시에 곤룡포우에 떠던 허리띠장식품이라고 합니다. 옛 기록에 의하면 왕건왕의 허리띠에는 이러한 옥띠고리가 62개 있었는데 왕릉의 무덤칸에서 2개, 왕릉 5m지점에서 12개의 옥띠고리가 알려졌다고 합니다.

금동좌상은 왕릉의 5m앞 1.5~2m의 깊이에서 발굴되었는데 사방 약 1.5m정도의 화강석판돌이 금동좌상을 덮은 모양으로 놓여있었으며 그 밑에 금동좌상이 앉은 모습으로 매몰되어있었습니다. 이 금동좌상이 발견될 당시에는 몸체에 얇은 비단천과 금박을 한 청동조각들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머리를 비롯한 부분적인 부위에 금도금을 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금동좌상이 쓰고있는 판은 외판과 내판으로 되어있습니다. 외판과 내판은 해, 달, 물, 산 등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황제나 왕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니 금동좌상은 곧 왕건왕을 형상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청장년의 얼굴모습으로 중엄하게 형상된 금동좌상은 갓 40대에 들어선 한창나이때 고려를 창건한 왕건의 풍격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습니다. 이 금동좌상은 실재한 왕건왕을 형상한 금속공예품으로서 귀중한 려사문화유물입니다.

옹장하게 개건된 왕건왕릉은 통일국가건설의 자랑찬 려사를 전하는 귀중한 려사문화유적으로서 근로자들을 애국주의로 무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있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신애

조국의 천연기념물 (2)

이번호에서는 조국의 천연기념물들 가운데서 모란봉의 청류벽회화나무, 사동구역의 덕동대 추나무, 력포구역 통산리의 소나무림과 통악산 지구에서 자라고 있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참중나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란봉의 청류벽회화나무는 다섯개 가지를 뻗친 회화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1790년경부터 절로 자란것이라고 합니다.

청류벽회화나무는 원래 원대와 뿌리목부위에서 사방으로 뻗은 원가지 여섯대로 되어있었는데 후에 길쪽으로 뻗은 한개의 원가지가 없어졌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14m입니다. 뿌리는 수직으로 내리꽂인 바위짬을 따라 4m정도 내려다가 바위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670년경에 심은것으로 알려져있는 **덕동대 추나무**는 평양시 사동구역 덕동리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는 높이 8.5m, 뿌리목둘레 2.6m, 가슴높이둘레 2.5m, 나무갓직경 7.2m정도입니다.

열매는 보통 길이 3cm, 너비 2cm정도이고 색깔은 붉으며 한알의 무게는 5~10g, 최고 17g 나가며 열매속에는 당분이 14%정도 들어있습니다.

덕동대추는 다른 대추에 비해 알이 크고 당

분이 많으며 오래동안 보관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조상나무로 불리우는 덕동대추나무는 대추의 품질이 대단히 좋습니다.

통산리소나무림은 력포구역 통산리 동명왕릉주변의 자연림으로서 면적이 60여정보입니다.

정보당 나무수는 500그루정도입니다.

이곳에는 350년이상 자란 소나무가 적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 200~300년생은 1800여그루이며 50년생은 27200그루입니다. 200~300년이상 자란 나무들 가운데서 제일 큰것은 뿌리목둘레가 3.1m, 가슴높이둘레는 2.9m나 됩니다.

소나무들의 평균높이는 18~20m, 나무갓직경은 5~6m입니다.

통악산은행나무는 통악산 법운암의 오랜 력사와 함께 500여년 자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처음 세그루를 심은것이 오래동안 자라면서 합쳐져 한그루처럼 되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28m, 뿌리목둘레는 3.7m이며 나무갓너비는 16.5m입니다.

밀동으로부터 3개로 갈라진 줄기는 2.5m높



청류벽회화나무

통악산은행나무

통악산느티나무

통악산참중나무

이에서 다시 많은 가지를 쳐서 비자루모양의 나무갓을 이루고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줄기의 가슴높이둘레는 각각 1.8m, 2m, 1.7m입니다.

통악산느티나무도 통악산에서 500년이상 자란 나무이며 그 생김새가 기묘한것으로 하여 풍치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18m, 뿌리목둘레는 7.1m, 가슴높이둘레는 5m정도입니다. 나무는 6m높이에서 세가다리로 갈라졌습니다.

통악산참중나무는 일지는 넓은잎키나무로서 우리 나라 서부지역에 분포된 참중나무의 북한

계점을 이루며 그의 식물분포학적 및 생태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와 이곳 명승지의 풍치를 돋구는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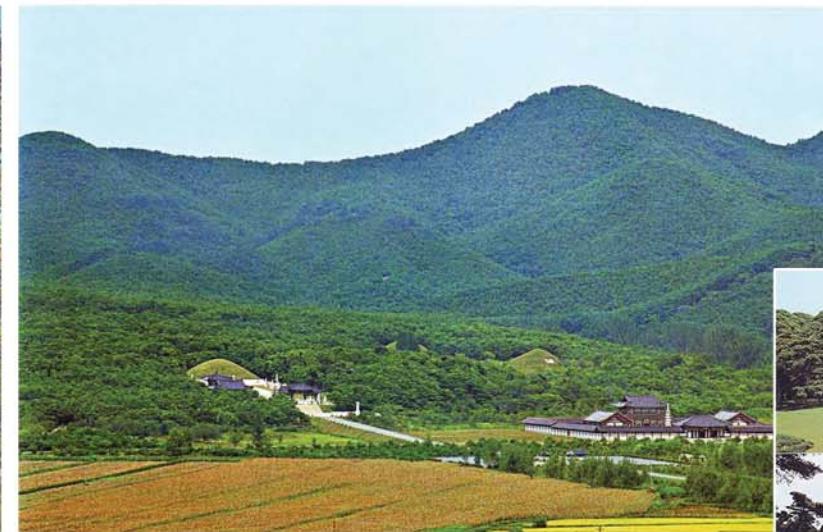
나무의 높이는 12m, 뿌리목둘레는 1.84m, 가슴높이둘레는 1.4m정도입니다. 나무갓의 직경은 8.5m입니다.

7월이 오면 가지끝에 꽃차례를 이루면서 흰색의 작은 꽃이 많이 피여나는데 독특한 냄새를 풍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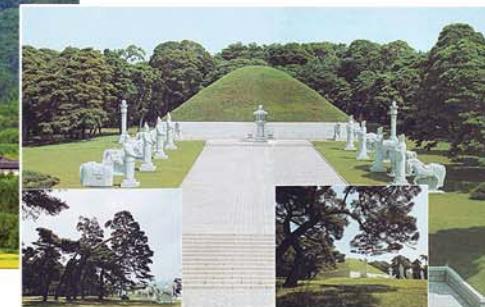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연구사 김지향



덕동대추나무



룡산리소나무림



상식

색갈과 건강

색깔은 건강한 사람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여러가지 영향을 미친다.

붉은색, 노란색은 희망과 신심을 불러일으키며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

흰색, 연한 감색, 맑은 풀색, 연누른색은 진정작용을 한다.

연한 감색은 열내림작용을 하고 감기에 좋은 영향을 주며 보라색은 임신부들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고혈압환자가 차색의 안경을 끼면 혈압이 낮아지며 저혈압환자가 불그스레한 환경 속에 있으면 혈압이 높아진다.

자살왕국 남조선

세상에 태여나 기쁨과 행복 속에 삶을 누리는 인생의 락을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물며 세상에 태여났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죽는 것을 좋아할 인간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남조선 사회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다. 그 수는 하루 평균 40여 명이 목숨을 끊을 정도로 많아 세계적으로 자살률에서 제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 이런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철탑우나 기중기탑, 굴뚝 우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아마도 잘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남조선의 쌍룡자동차 해고로 동차 2명이 높은 굴뚝우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항의 통성을 벌리였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친 바람부는 굴뚝우에서 애달픈 호소와 항의를 해도 당국과 기업체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결국 그들이 갈길은 어디이겠는가. 사실 그들은 앞서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려보려고도 했지만 벌려보았던 『정부』로부터 탄압과 박해, 온갖 멸시만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럴 바에는 사람이 범접하기 어려운 굴뚝같은데 올라가서 해보자고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조금도 달라질 것이 없었다. 결국 그들이 간 길은 자살길뿐이었다.

박근혜는 이른바 『대통령』 선거 때 앵무새처럼 『국민행복 시대』, 『민생복지』를 넘불처럼 외워냈지만 집권 후 그것을 다 훼버리고 한줌도 안 되는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을 내세웠다. 결과 남조선 사회에서는 빈곤층이

50% 이상에 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난에 허덕이게 되었으며 주민들 속에서는 삶을 포기하고 자살 길을 택하는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 사실은 충청북도 청주에서 일어난 세 모녀 자살 사건과 40대의 한 남성이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유서에 생활난을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글을 써놓고 서울역 전 대도로에서 분신 자살한 사건,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던 한 남성이 직장에서 해고되어 실업자로 된 후 집안을 떠여 살릴 수 없게 되자 『도저히 가정을 꾸릴 자신이 없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 사회의 가정의 현실이다.』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 사건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

남조선의 어느 한 기관이 밝힌데 의하면 년간 전체 자살 건수가 운데서 5건 중 1건이 빈곤한 생활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39.5%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매일과 같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정을 이끌고 있는 40대 중년 남자들 속에서 제일 우심하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사회 각계에서 『박근혜의 재벌정책』에 의하여 빈곤층으로 전락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살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의 자살률이

1965년의 자살률과 똑같은 것은 박근혜가 박정희처럼 자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결과이다.』, 『자살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박정희의 DNA가 딸에게 유전되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겠는가.

남조선의 농후한 자살 실태에 대하여 세계 언론들도 강하게 떠들고 있는데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파거에는 주로 로인이나 중장년층에서 이루어지던 남조선의 자살 사건들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20~30대는 물론 10대의 청소년 층에까지 확산되어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 것은 치마두른 악녀인 박근혜 집권 이후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며 지어 아시아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 기구들도 성명서를 내여 남조선 당국의 반인민적 정책으로 빚어지고 있는 자살 문제들을 심각하게 취급하면서 남조선 사회 현실을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이처럼 남조선 사회에서 자살자가 끝없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인민들의 생활 상고통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사대와 매국으로 제 개인의 안일과 향락, 권력만을 추구하고 있는 박근혜 패당의 반인민적 악정에 있다.

남조선이 자살왕국으로 불리우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은 남조선 인민들 자신의 참된 삶을 담보하는 길은 오직 박근혜 패당의 반인민적 악정을 하루빨리 끌어내는 길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9 가지 나물

후안무치한 희세의 탕녀

돌팔이 무당 최순실의 꼭두각시로 놀아난 박근혜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의 대상으로 저주와 규탄을 받고 있을 때에 역적년의 부정한 행실을 타매하는 목소리까지 그칠 줄 모르고 울려나오고 있다.

인터넷에서 『박근혜』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사생아 존재여부』, 『최태민파의 불륜관계』, 『약혼설』, 『비밀 결혼설』 등 년의 부화방탕한 뒤행 활을 반영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남조선의 『미디어 오늘』을 비롯한 언론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박근혜는 예미가 죽은 후 『령부인』 행세를 하던 20대 초에 벌써 저보다 40년이나 우이며 최순실의 애비인 늙다리 목사 최태민파 불륜 관계를 맺고 배꼽을 맞추며 돌아쳤다고 한다.

최태민은 5. 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를 자주 만나 조언을 주곤 하였는데 박근혜의 예미 륙영수 가 사살된 다음에는 꿈에서 딸을 잘 지켜달라는 륙영수의 편지를 받았다느니 뭐니 하면서 역도년을 꼬여내여 때 없이 끼고 다닌 인물로서 이름만 해도 7개나 가지고 있었고 종교는 4번이나 바꾸면서 교주로 행세한 이단자, 너편네는 6번이나 갈아댄 색광이었다.

당시 박정희는 최태민을 『정치적 스승』으로 섬기며 치정 관계를 가진 박근혜에게 사생이가 있다는 말이 떠돌고 『약혼설』, 『비밀 결혼설』이 나돌자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그자를 뒤조사하다 못해 제가 직접 청와대에 불러다 심문하는 놀음까지 벌리였다.

최태민의 다섯 번째 딸인 최순실은 박근혜와 『자매』 관계를 맺고 그를 손안에 틀어쥐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지어는 제 남편까지 섬겨버친 년이다.

박근혜는 최태민이 송장이 된 후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를 옆에 끼고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

정윤회는 박근혜 역도가 륙영재 단의 리사장으로 있을 때부터 『한국미래련합』 대표로 있을 때까지 비서실장을 하면서 년의 방에 손기척도 없이 들어갈 정도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 자이다.

박근혜는 동생 벌되는 정윤회를 청와대 안방에 까지 끌어들여 온갖 추잡한 짓을 다하였으며 정윤회는 역도를 등대고 특대형 부정 부패 행위와 국정 개입을 일삼아왔다. 때문에 항간에서는 『국회의원은 공천 따내는 재주가 있고 정윤회는 박근혜 마음 얻는 재주가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런 것으로 하여 정윤회에게는 『박근혜의 밤의 비서실장』이라는 별명이 붙어다녔고 나중에는 정윤회 국정 개입 사건까지 터지게 되었던 것이다.

2014년 4월 『세월』 호침몰로 아이들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박근혜는 7시간 동안 정윤회와 침대에서 당글며 시간을 보냈다.

지금 남조선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특대형 부정 부패 행위와 성추문 사건들이 전례 없이 성행하는 것은 천하의 탕녀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를 태고 앉아 부화방탕한 생활로 패륜 패덕만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내외여론은 이번 최순실 국정 랭킹 사건을 두고 국제 정치사에서 륙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대형 추문, 박근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긴 중대 사건으로 주목하고 있다.

남조선 땅을 오늘과 같은 패륜 패덕의 란무장, 부정 부패의 전시장으로 만들어놓은 후안무치한 희세의 탕녀 박근혜가 갈길은 불보듯 뻔하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4. 19의 합성으로 리승만을 꺼꾸러뜨린 것처럼, 반파 쇼민주화의 거세찬 합성으로 박정희에게 비참한 종말을 안긴 것처럼 박근혜 일당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은 정월 대보름 날이면 오곡밥에 9 가지 마른 나물 반찬을 결들였다.

9 가지 나물에는 무우잎, 버섯, 고사리, 고비, 가지, 무우오가리, 도라지, 고구마 줄기, 호박오가리 등 말린

나물들이 속하는데 이것은 다 흔한 음식 재료들이다.

예로부터 오곡밥에 결들이는 반찬으로 9 가지 나물을 드는 것은 지난 시기 수자 9가 한자리수의 마지막 수인 동시에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9 가지의 나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많은 나물을 섭취하게 될 뿐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 * *

과거 일제의 원자탄개발책동의 진상 (3)

미국은 일본의 《핵야망》을 비호해준 공범자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이 극비밀리에 추진시켜온 원자탄개발책동의 진상을 파헤쳐보았다. 그러면 자연히 독자들은 어떻게 되여 일제가 폐망직전까지 원자탄을 마감단계에서 개발할수 있었고 그 내막이 오늘까지 비밀에 불여져오고있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될것이다. 거기에는 미국의 검은 속심이 질게 깔려있는것과 관련된다. 사실 미국은 구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의 말기 조선동부의 흥남에 있던 화학공장에서 원자탄의 개발, 실험을 진행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은 그때 일제가 오사카일대에 있던 일본제철의 시설을 청진으로 옮겨가고 동위원회분리기가 흥남으로 이동하고있다는 사실, 흥남에서 플루토니움 504kg이 하세가와라는 인물의 책임아래 관리되고있다는것 등의 극비밀들을 손금보듯 꿰뚫고있을때서 찾아볼수 있다. 그런데로부터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중과 그 말기까지 일본에 있는 공장을 다 폭격하면서도 핵개발기지인 조선의 흥남에 있는 공장을 폭격하지 않

았으며 일본에 우라늄을싣고 가던 도이췰란드 잠수함 《U-234》호를 나포하였을 때에도 선적된 화물이 산화우라늄이라고 거짓발표를 하는것과 함께 방사능물질의 근거로 되는 잠수함을 1947년 11월 20일 잠수함어뢰사격으로 파괴하여 증거를 없애버리였다.

일제가 폐망직전에 흥남앞바다에서 원자탄시험을 진행한 사실을 놓고도 미국은 이를 극력 부인하면서 사실을 오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당시 미국이 거짓말을 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1999년 8월 6일 일본의 《니시니혼신봉》은 지지통신이 입수한 자료를 보도하였는데 거기에는 구일본군이 흥남앞바다에서 원자탄시험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미군이 쥐고 전후 일본을 점령통치한 협군총사령부 등이 비밀리에 조사한 내용이 있었으며 남조선주둔 미군사령부 방첩부대가 작성한 1947년 1월 16일부 보고서에도 우와 같은 내용이 밝혀져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미국은 1945년 9월 일본의 핵무기개발조사조직을 일본에 파견하여 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조직은 일본의 핵물리학의 수준평

옛날 어느 교을에 김양옥이라 고 하는 선비가 살고있었다.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10여년동안 글만 배우다나니 집안에 얼마 없던 재산마저 거덜이 났다.

어느날 어머니는 웃장안에서 족자 하나를 아들앞에 꺼내놓으며 말하였다.

『이제는 집안에 이 족자밖에 남은것이 없다. 이것은 솔거라는 화가가 그린 명화인데 이것을 가지고 서울로 가서 팔아오너라. 그래서 물방아간이나 하나 사서 살아가도록 하자.』

이튿날 새벽 길을 떠난 김양옥은 사흘후 서울에 도착하여 은

화 150냥에 족자를 팔았다. 그는 눈이 까맣게 아들을 기다릴 어머니를 생각하여 그길로 돌아섰다.

이튿날 저녁때 그가 객주집에서 쉬는데 옆집에서 너자의 슬퍼 흐느껴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날이 밝자 객주집을 나서며 옆집을 바라보니 감때사나운 웬 사나이가 열대여섯살쯤 돼보이는 처녀를 끌고나오고 그뒤로 50가까이 된녀인이 뒤쫓아나오며 처녀를 끌어안았다.

김양옥은 이 광경을 보고 발길이 멀어지지 않아 사연을 알아보았다. 사연인즉 처녀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빚을 내여 빼기논을 풀었는데 그것은 량패를 보고 리

야화

은혜와 보답의 꽃

자에 리자가 불어 은화 120냥으로 불었다는것이였다.

그는 주저없이 은화가 든 보따리를 풀어 120냥을 내여주고 사나이에게서 문서장이라는것을 빼앗았다. 그러자 어머니와 딸이 김양옥의 웃소매를 불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그는 지금 자기 집에는 늙으신 어머니가 홀로 계시므로 빨리 가야 한다고 이르고 길을 떠나려 하였다. 그런데 모녀는 은

폐이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이듬해 봄 김양옥이 심한 열병에 걸려 앓게 되었다. 모녀는 은인을 모든 정성을 다해 간호해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였다. 처녀가 가지고 온 미음을 마시고 난 김양옥은 그와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미옥이, 고맙소. 내가 살아나게 된것은 미옥이가 밤잠도 자지 않고 정성껏 간호해주었기때문이요. 파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는지…』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저의 모녀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것은 오로지 은인께서 구원해주신

덕분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앞으로 일생을 두고 시중을 들어도 다 갚지 못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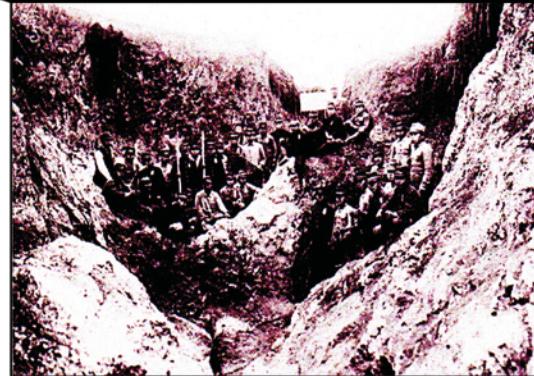
『일생을 두고 나의 시중을 들다니? 시집도 안가고?』

『네. 은인의 일이라면 한평생을 두고 도와드릴 결심입니다.』

『아니 그것이 진정으로 하는 말이요?』

『네. 한평생이 아니라 백평생까지도…』

그해 가을 김양옥과 양미옥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일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을 동원하여 우라늄채굴을 계속하였다.



우라늄정련소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기정사실처럼 인정되어있는 등 미일관계가 침예한 시기였다. 하지만 이런 때에 로렌스가 원자탄개발연구에 절실히 필요한 핵기술과 장비를 정부의 허가없이 순수 개인적친분관계에 따라 일본에 넘겨주었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럼 미국은 왜 일본의 원자무기개발책동을 도와주고 그 자료를 은폐하였는가.

그것은 핵무기와 관련한 정보를 독점하여 세계적인 핵군비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자는 데 있었다. 그리고 구일본군의 731부대의 세균전만행을 눈감아준것처럼 일본의 핵과학자들을 살려주어 그들로부터 핵관련자료를 손쉽게 넘겨받으며 차후 일본을 미국의 아시아지배전략의 교두보로, 돌격대로 써먹을 흥심때문이였다.

미국의 뮤인파 비호아래 일본의 《핵야망》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본사기자 강경수

반공화국제재소동의 진상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제재소동에 악착스럽게 매달리고 있다.

그들은 『북이 고통을 느낄 때까지』, 『평양이 전략적셈법을 바꿀수밖에 없게』 될 때까지 새로운 『초강도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가 하면 실행중에 있는 유엔 『제재결의』들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제재조항들을 새로 보충하는 것을 비롯하여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지어 미국은 주권국가들에 공화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급을 낮추라고 강압적으로 내리먹이고 있으며 공화국의 유엔성원국자격까지 운운하는 황당무계 한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에서 『북인권결의안』이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하였다.

미국은 제재의 원인이 마치도 공화국의 『핵도발』과 『인권문제』에 있는듯이 랑설을 내돌리고 있다. 공화국의 핵무력강화조치를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벌리는 행동』,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과 도전』이라고 걸고들며 『더욱 강력하고 정밀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이것은 주권국가인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고 생존권마저 강탈하려는 날강도적인 전횡이다. 미국의 항시적인 위협 속에 있는 공화국에 있어서 핵보유는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였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동안 추종세력들까지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책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공화국에 핵위협을 로골적으로 강행하여왔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화국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강화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한 조치이다. 만일 핵억제력을 틀어쥐지 않았더라면 우리 공화국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라크나 리비아와 같은 굴종과 예속의 비극적종말을 빚어냈을 것이다.

오늘 공화국의 핵보유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번영의 밑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다는 것은 세인이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도리여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무시』로 미국이 걸고드는 것은 날강도적인 궤변이 아닐수 없다.

특히 그러한 것을 코에 걸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려놓는 반공화국제재소동은 조선인민의 생존권을 통채로 강탈하는 반인륜적범죄이다.

공화국을 불빛 한점 없는 원시시대로 돌아가게 만들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가한 전대미문의 경제적봉쇄책동으로 하여 공화국은 1990년대에는 고난의 행군을 겪어야 했고 그후에도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은 공화국에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도 『인권유린』이니, 『참혹한 실상』이니 하며 모든 민생용수출입통로마저 완전히 막고 지어 체육교류를 비롯한 민간교류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고아대고 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해지는 제재소동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껏 끈질기게 추구해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지난 세기 50년대의 침략전쟁도발로 이어졌고 그후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공화국에 대한 류례없는 제재와 압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은 공화국이 핵을 가지기 이전에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제재와 공갈, 압박을 가해왔다. 더우기 랭전종식이후에는 사회주의기치를 내리우지 않는 한 공화국과 절대로 공존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책화하고 『악의 축』, 『핵선제타격』 등 폭언과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오늘 공화국은 미국의 책동에 대처하여 핵무력강화에서 련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럴수록 미국은 『더 강력한 제재』, 『더 물샐틈없는 제재』를 제창하며 추종세력들을 종동원하여 『제재』의 도수를 최대로 높이고 있다. 지어 공화국의 『수뇌부제거』와 『제도붕괴』를 거리낌없이 공언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현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의 핵과 『인권문제』를 걸고 떠드는 『제재』라는 것들이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려는데 궁극적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감행하고 있는 반공화국제재소동의 진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고 있다. 오늘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제재속에서도 핵강국, 군사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을 뿐만아니라 인민의 락원인 사회주의강국을 힘차게 건설하고 있다.

미국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고 이제라도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제재소동을 집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전룡진



마식령스키장,
겨울철관광에서는 으뜸

조국의 중부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마식령은 동서를 이어주는 령입니다.

산세가 험하여 말도 넘기 힘들어 쉬여간다는 뜻에서 이름지어진 마식령지구에 관광객들을 어서 오라 부르는 스키장이 몇들어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주체102(2013)년 12월에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의 부지면적은 1 412정보입니다. 이곳에는 40~120m의 폭을 가진 10개의 스키주로(총연장길이 근 11만m, 스키주로의 최대경사각도 39. 8°)들과 어린이눈놀이장, 스케트장이 있습니다.

설경속에 잠긴 중중첩첩한 산발을 굽어보며 삭

도를 타고 오르는 멋파 대화봉(1 363m)정점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지치는 쾌감은 관광객들의 상상을 초월할것입니다.

스키학교의 유능한 지도교원들이 스키를 배우려는 관광객들의 요구를 만족시켜드리고있습니다.

스키주로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산골짜기에 주변풍치와 어울리게 서있는 호텔(수용능력 350여명)에는 1등실, 2등실, 3등실, 가족방을 포함하여 120개의 손님방들이 있습니다.

호텔의 여러 식당들에서는 마식령특산료리들과 조선민족음식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난 료리를 맛볼수 있습니다.





설경속의 소백수

본사기자 최원철

온통 흰눈뿐이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을 감돌아 소소리높은 나무들사이로 사시장철 변함없이 흘러내리는 《소백수골8경》의 하나인 《사계류수》-소백수의 맑은 물은 사람들 모두의 가슴속에 우리 조국의 봄은 2월에 시작된다는것을 알려주는듯 싶다.